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 중심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스토리텔링과 하브루
타의 통합적 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메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김인기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Ingi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HOME-CENTERED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FOCUSING ON AN INTEGRATIVE PEDAGOGICAL MODEL OF STORYTELLING AND HAVRUTA

Ingi Kim

Bucheon, Korea

This study critically re-evaluates home-based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torytelling and Havruta as integrative and dialogical pedagogical frameworks. The COVID-19 pandemic exposed the structural fragility of church-centered models of faith formation, as the suspension of in-person worship significantly disrupte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ith. In this context, parent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experienced acute spiritual burnout, which intensified the tendency to externalize religious education to ecclesial institutions, thereby fundamentally undermined their role as primary agents of faith formation.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a “Family-Linked Table Havruta” model that reconfigures the household as a primary locus of theological formation and lived praxis. Moving beyond hierarchical and didactic paradigms, the model emphasizes dialogical engagement through narrative participation, mutual inquiry, and relational co-construction of meaning. This pedagogical shift seeks to restore parental spiritual agency

and to rearticulate the family as a formative site of embodied faith.

To assess the practical viability of this model, a qualitative ministry-based intervention was conducted at Bucheon Church from March 2025 to March 2026. The intervention established a liturgical-pedagogical continuum linking narrative preaching in corporate worship with dialogical practices within the domestic sphe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is integrative approach facilitated meaningful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centered on shared biblical narratives and contributed to the reconstitution of the household as an *ecclesiola* (a “little church” with the household).

국문초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 중심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스토리텔링과 하브루타의
통합적 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김인기

부천, 대한민국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교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특히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체계의 심각한 단절을 초래하였다. 대면 예배의 중단은 교회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으며, 그 결과 가정 내 신앙교육의 공백이 드러났다. 특히 3040 부모세대는 경제적 책임과 양육 부담이 중첩된 상황 속에서 영적 번아웃을 경험하였고, 자녀 신앙교육을 교회에 의존하는 ‘신앙 전수의 외주화’ 경향이 심화되었다. 이는 부모를 신앙교육의 1차적 주체로 상정하는 성경적 원형의 약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신학적 대안으로 ‘가정 연계형 식탁 하브루타(Table Havruta)’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기존의 수직적·지식 전달 중심 교육 방식을 넘어, 질문과 대화를 기반으로 한 관계적·참여적 학습 구조를 지향한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통한 서사적 참여와 하브루타를 통한 대화적 상호작용을 통합함으로써, 부모의 영적 주체성을 회복하고 가정을 신앙 형성의 핵심 장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연구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부천교회에서 질적 연구 기반의 사역 기반 실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주일의 스토리텔링 설교와 주중 가정 식탁에서의 하브루타 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그 결과 세대 간 신앙 소통의 회복과 가정 공동체의 재구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는 교육적 부담에서 벗어나 영적 회복을 경험하였고, 가정은 실천적 신앙이 구현되는 ‘소교회(*Ecclesiola* 가정 내에 형성된 ‘소교회’)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앙교육이 교회와 가정 간의 유기적·상호적 협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교회는 신학적 자원과 방향성을 제공하고, 가정은 이를 일상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신앙을 내면화하는 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다음 세대 신앙 회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대안으로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목차

감사의 글	xii
표 목차	xi
그림 목차	xii
I.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의의	6
C.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9
D. 용어정의	11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해	15
A. 가정에서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	15
1. 팬데믹이 가져온 가정의 구조적 전환	15
2. 3040 부모세대의 위기와 교육 주체의 혼란	16
3. 가정 신앙교육의 실태	18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의 과제	19
B. 교회에서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	21
1. 팬데믹이 교회에 가한 충격	21
2. 하이브리드 목회와 ‘올라인(All-Line) 사역’의 등장	21
3. 유비쿼터스 교회와 새로운 참여 방식의 요청	22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과제	
----------------------------	--

III. 가정 내 기독교교육의 성서적 기초	24
A.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과 성서적 스토리텔링	24
B. 질문하시는 하나님과 성서적 하브루타	26
C. 구약성경 속 가정 내 기독교교육의 실제: 사건과 전수	27
1. 쉼과 부모의 교육적 사명	28
2. 유월절과 기억의 전수	29
3. 길갈의 열 두 돌과 시각적 교육	29
D. 신약성경 속 가정 내 기독교교육의 모델: 오이코스과 경건의 전수	30
1. 디모데 가정의 3대 신앙전수	30
2. 고넬료 가정의 구원과 가장의 역할	31
3.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과 하브루타	31
IV. 학습 방법으로서의 스토리텔링	33
A.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서사적 삶과 다시 성경	33
1. 패러다임적 삶을 넘어 서사적 삶으로	33
2. 다시 성경(ReBible): 텍스트의 감옥에서 해방된 살아 있는 음성	35
B. 침묵의 미학: 비매체적 스토리텔링	36
1. 침묵; 상상력이 깃드는 창조적 여백	36
C.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탈미담을 넘어 하베림으로	39

1. 비유: 닫힌 결말을 거부하는 열린 초대	39
2. 관계적 교육: 발 아래의 제자에서 식탁의 친구로	39
V. 학습 방법으로서의 하브루타	42
A. 하브루타 속 암기: 창의성을 위한 내면화, 하트러닝	42
1. 암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과의 활주로	42
2. 하트러닝: 지성을 넘어선 전인적인 새김	43
B. 하브루타 속 토론: 앎을 삶으로 번역하는 용광로	44
1. 베이트 미드라쉬의 소음: 질문과 논쟁	44
2. 가정식탁: 치열한 소통과 거룩한 논쟁의 장	45
C. 가정 식탁에서의 하브루타 적용	46
1. 식탁 공동체: 현대적 베이트 미드라쉬	46
2. 질문을 통한 신앙 형성	46
3. 상호 학습(Co-learning) 구조	47
D. 하브루타의 신학적 의미	47
VI.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의 실제적 적용	48
A. 준비기: 교육환경의 물리적·신학적 재구성	48
1. 교회학교의 환경: 멈춰버린 시간과 점유된 공간	48
2. 공간의 혁명: 3.3톤의 폐기와 유비쿼터스의 예배실 확보	51
3. 시스템의 전환: 원포인트 통합교육과정의 설계	55
B. 적용사례 1: 도입기(교회)-여호수아 6장, 침묵의 행진과 함성 ...	57
1. 원포인트 메시지: 무너짐이 아닌 동행의 기적	57

2. 비매체적 스토리텔링: 시각자극의 소거를 통한 하나님의 현존 감각화	60
3. 세대별 설교의 번역: 침묵과 경청의 언어	63
4. 현장의 반응: 수동적 관람자에서 능동적 청취자로	65
C. 적용사례 2: 심화기(집) - 식탁 위에서 확인하는 동행의 기적....	69
1. 심화의 방향: 감각된 임재에서 고백된 동행으로	69
2. 식탁 하브루타의 실제: 우리 가정의 여리고 찾기	70
3. 부모의 역할 변화: 양육자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72
4. 변화의 관찰: 대화의 회복과 영적 연대감 형성	74
VII.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의 적용결과 및 분석	75
A. 정량적 분석: 멈춰선 성장에서 회복의 수치로	75
B. 정성적 분석 1: 3040 부모세대의 ‘가정 제사장직’ 회복과 영적치유	78
C. 정성적 분석 2: 3040 부모세대의 신학적·교육적 유의	81
D. 평가 및 제언: 현실적 한계와 극복과제	84
VIII. 결론	86
A. 결론과 제언: 연구의 요약 및 종합	86
B. 한국교회를 위한 제언	90
C.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92
D. 에필로그	93
참고문헌	94

표 목차

표 6-1. 세대별 여호수아 6장 설교 구성 및 언어 변환 비교	55
-------------------------------------------	----

그림 목차

그림 2-1. 직장/사회생활/가사/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3040 개신교인)	15
그림 2-2. 코로나동안 세대별 신앙수준 변화	16
그림 6-3. 가정용 하브루타 활동지 예시: 동행의 식탁	62
그림 7-1. 아동부 재적 및 출석 성장 추이 (2025.03-12)	68
그림 7-2. 영유아유치부 재적 및 출석 성장 추이 (2025.08-12)	69
그림 7-3. 3040 부모세대의 영적치유 메커니즘(Teaching to Sharing)	73
그림 7-4. 세대별 가정 연계 교육의 신학적·교육적 유의 구조	76

감사의 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만의 학업은 제게 벅찬 광야였습니다. 펜을 쥐고 싶던 술한 밤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약함을 핑계 삼아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곁에서 동행하며 말씀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릴 뿐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버텨주신 아버지 김학의 목사님과 어머니 박윤주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움의 때를 놓친 서러움을 내 아들만큼은 겪게 하지 않겠다"시며 쏟아주신 두 분의 눈물과 헌신이 지금의 저를 빚어냈습니다. 그 묵직한 사랑과 기대를 평생의 목회로 갚아나가겠습니다.

목회와 학업이라는 핑계로 가정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신 장인어른 황인식 장로님과 장모님 조중란 권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는 목회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위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천교회와 현장의 땀방울을 함께 흘려준 하·기·부 선생님들과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향해 묵묵히 동역해 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라는 새싹이 돌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진정한 주인공은 치열하게 함께 걸어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병의 아픔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부족한 남편을 세워준 나의 든든한 동역자, 사랑하는 아내 황다혜 사모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게 해줄 순 없어도, 매일의 근심을 잊을 만큼 하루 한 번은 꼭 웃게 해주겠다"던 그 투박한 약속을 굳게 믿어준 당신 덕분에 저와 우리 가정이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깊이 사랑합니다.

끝으로 나의 자랑, 진건아, 진언아. 사랑한다.

2026년 3월

김인기

I. 서론

A. 연구의 목적

2020년 1월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한국 사회의 일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으며, 한국교회는 창립 이래 가장 가혹한 영적·현상적 도전에 직면하였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대면 예배 제한은 교회의 물리적 구심점을 약화시켰고, 이는 교회학교 사역의 중단과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공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종교 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앙 전수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중요한 지표이다.¹

특히 3040세대 부모들은 직장과 육아의 이중 부담 속에서 영적 번아웃을 경험하며, 가정 내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진익창은 이러한 현상을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The Weak Link)’로 규정하며, 부모 세대의 영적 회복 없이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역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²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가정은 신앙교육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해야 했으나,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 신앙교육을 교회에 의존해왔던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김윤민은 이를 ‘신앙 전수의 외주화(Outsourcing)’ 현상으로 분석하며, 교회 중심 교육 구조의 한계를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이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

¹ 한국갤럽, 「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5. 11. 5 최종 접속).

²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160.

다. 현직 공교육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교육 붕괴의 이면에는 가정 내 인성 교육을 학교로 떠넘긴 부모들의 책임 회피가 자리하고 있다. 교회 교육 현장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입시와 학업을 핑계로 자녀의 예배 결석을 '합법화'하면서도, 자녀의 신앙 성장이 더딘 책임을 오롯이 교회학교 시스템의 부재로 돌리는 모순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김윤민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존의 교회 중심 교육 시스템이 가정을 신앙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머물게 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앙 전수의 무게 중심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이동해야 함을 역설한다.³

이러한 시대적 파고는 연구자가 사역하는 부천교회 현장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심각한 지표로 확인되었다. 연구자가 13년 만인 2025년 부천교회로 다시 부임했을 때 마주한 현실은, 시간이 멈춘 듯한 교육적 정체였다. 현장에는 연구자가 사역을 떠났던 2012년도의 낡은 공과 자료와 시대착오적인 교육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팬데믹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10여 년간 지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 질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가 대형 교회나 특정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는 '신앙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연구자의 고향이자 목회지인 부천교회에서 아동 신앙 전수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형태로 발현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때 느낀 '거룩한 분노'의 근원은 비단 부천교회의 낙후된 자료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구자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 여러 사역 현장을 거치며 심층적으로 경험했던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에 기인한다.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구호로만 외칠 뿐, 정작 교육부서에는 최소한의 예산과

³ Yumin Kim, "Church Education in the Age of the New Normal: A Case Study of Saejungang Church,"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2), 48.

권한만을 배정하고 담당자에게 무한한 헌신을 강요하는 '구조적 착취'를 반복하고 있었다. 지원 없는 요구와 책임 전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교사들과 교역자들은 소진(Burn-out)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로 귀결되었다. 다행히 부천교회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구조적 모순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목회적 의지가 분명했다. 교회는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교육부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으며, 연구자의 목회적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는 연구자가 단순히 프로그램의 복구가 아닌 신앙 전수 생태계의 '근본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목회적 자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적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경험한 이 '거룩한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 격동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토로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본질이 훼손된 현장을 목격한 사역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감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역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게 만든 '신학적 성찰의 도화선'이었다. 연구자는 낡은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 '퇴보'일 수 있음을, 그리고 공간을 점유한 채 생명력을 잃은 도서관이 오히려 다음 세대의 실질적인 예배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걸림돌'임을 직시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부임 직후, 다음 세대 교육의 회복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깨는 과감한 목회적 결단을 단행하였다. 지역사회 연계라는 명분 하에 수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실제 교육적 효용을 상실했던 '작은 도서관'의 장서 약 3톤과 집기 1톤을 처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정리 차원을 넘어, 정찬일 박사가 제시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자,⁴ 서은성이 제안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올라인(All-Line)' 사역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⁵ 즉, 지식의 박제된 보존(도서관)보다 살아있는 말씀의 전수(예배실)를 최우선 순위에 둔 '공간의 신학적 재정의(Theological Redefinition of Space)'를 실천한 것이다. 이 결단은 교회의 물리적 중심을 다음 세대에게 내어주는 상징적 행위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6명으로 시작했던 아동부 예배는 현재 평균 15명의 아동들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흥에 힘입어 2025년 8월에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유아·유치부'를 분리 개척하였으며, 첫 주 3명으로 시작된 예배가 12월 기준 8명으로 증가하는 등 사역의 가시적인 회복과 확장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부천교회의 실제적인 회복 임상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가정 연계형 신앙교육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자는 특히 두 가지 핵심 기제인 스토리텔링과 하브루타의 유기적 결합에 주목한다. 첫째, 연구자가 고집하는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은 화려한 영상 매체가 초래하는 인지적 과부하를 차단하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게 한다. 이는 이사야 박사가 지적한 대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인 '모이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⁶ 또한 관념적 이해보다 전인격적 체험(Yada)을 중시하는 '히브리적 사고'의 원리에 따라, 학습자가 수동적 청취자를 넘어 말씀의 서사에 깊이

⁴ Chanil Jung, "A Ministerial Method for Ubiquitous Church: A Case Study of Hansomang Church, Paju, Korea,"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2), 3.

⁵ Eunseong Seo,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ll-Line Ministry in the Post-COVID Era: Focusing on the Case of Hansomang Church in Korea,"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5), 3.

⁶ Saya Lee, "A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Online Church Content Development in the Post-Pandemic Era: Focusing on the Case of Yanglim Church in Gwangju,"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3), 5.

'참여(Participation)'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Experience)'하게 함으로써, 수동적 관찰자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앎이 완성되지 않는다. 입력된 이야기(Storytelling)가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대화(Havruta)라는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둘째, 예배의 감동을 가정의 식탁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하브루타 브릿지'를 통해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의 핵심 가치인 '오소프락시(*Orthopraxy*, 바른 실천)'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주일 예배의 일방적 청취를 넘어, 부모와 자녀가 식탁에서 질문과 대화로 신앙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가정을 '패밀리 크리스천(Family Christian)'의 장으로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단순히 자녀의 양육자를 넘어, 자신의 영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포텐셜 레이더티(Potential Laity)'로서 교회 사역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가정 연계형 신앙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스토리텔링과 하브루타를 결합한 교육 방식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천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인식 구조가 본질적으로 서사적(narrative)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 방법론이다. 제롬 브루너(Jerome Bruner)는 인간 이해의 핵심을 ‘서사적 앎(Narrative Knowing)’으로 설명하며, 이야기가 인간의 의미 형성과 정체성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⁷ 또한 폴 리코어(Paul Ricoeur)는 이야기가 인간 존재를 해석하는 틀이라고 주장하며, 신앙 역시 서사적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⁸ 다시 말해 브루너는 인간의 인식 구조를 서사적 관점에서 이해하

⁷ Jerome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11.

⁸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52.

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다”⁹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인간의 의미 형성이 이야기 구조에 의존한다고 보며, “인간의 의미 구성은 본질적으로 이야기와 이야기 해석에 의존한다”¹⁰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리코르의 해석학과도 맞닿아 있는데, 그는 “시간은 이야기로 조직될 때 비로소 인간적인 시간이 된다”¹¹고 설명한다.

그러나 단순한 이야기 전달만으로는 신앙의 내면화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내면화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대 전통의 하브루타(Havruta)는 짝을 이루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학습 방식으로, 학습자를 수동적 청취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시킨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매체적 스토리텔링과 하브루타는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신앙 전수의 핵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

B.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팬데믹이 폭로한 기존 교회 중심 신앙교육 구조의 취약성을 통계적 수치와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종교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0% 이상에 달했으며, 특히 다음 세대의 종교활동 이탈은 향후 한국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부천교회의 사례를

⁹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97.

¹⁰ Ibid., 47.

¹¹ Ricoeur, *Time and Narrative*, 52.

통해 이러한 일반적 통계가 실제 지역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교육 공백과 공동체 와해로 이어졌는지 성찰함으로써, 사역의 중심축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실천신학적 당위성을 통계와 임상을 결합하여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지목한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3040세대를 다시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3040 부모세대는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영적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본 연구는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대화하는 하브루타를 통해 어떻게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는지 추적한다. 이는 3040세대를 사역의 객체에서 주체로 전환시키는 '포텐셜 레이더티(Potential Laity)' 전략의 실천적 사례로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사로 거듭나는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사역적 가치가 크다.

셋째, 본 연구는 시각 매체의 범람 속에서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이 지니는 고유한 교육학적·영성적 의의를 재정립한다. 정찬일 박사는 시공간을 초월한 '유비쿼터스 목회'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는데,¹² 본 연구가 제안하는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피로도(Digital Fatigue)를 극복하고 연구자의 육성과 호흡을 통해 학습자의 내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할 것이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함몰된 한국교회학교 교육에 아날로그적 경청과 대면 영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독창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실제 지역교회 현장에서 관찰된 '패밀리 크리스천(Family Christian)' 모델의 실재성을 증명한다. 부천교회에서 관찰된 3대(할머니-엄마-

¹² Jung, *A Ministerial Method for Ubiquitous Church*, 5.

아이)가 동일한 본문을 바탕으로 식탁에서 신앙 대화를 나누는 현상은, 기존의 부서별로 분절된 교육 시스템을 극복하는 '세대 통합 교육'의 실제적 증거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교회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역 모델이 성도들의 삶에서 '오소프락시(*Orthopraxy*, 바른 실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중소형 교회들에게 즉각 적용 가능한 실천적 매뉴얼로 쓰임 받기를 기대한다.

C.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로 진입한 시기부터, 연구자가 부천교회에 부임하여 다음 세대 사역의 혁신을 단행한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그 범위로 설정한다. 공간적으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부천교회를 단일 연구 대상지로 확정한다.

연구의 인적 범위는 부천교회 교회학교에 소속된 아동 및 그들의 부모 세대를 핵심 관찰군으로 삼는다. 특히 본 연구가 3040 부모세대를 집중 조명하는 이유는, 진익창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이 직장과 양육의 이중고 속에서 가장 심각한 '신앙의 단절(Faith Gap)'을 경험하며 교회 내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이들의 영적 회복이 곧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선결 과제임을 전제로 한다.

¹³ Ikchang Jin, "Intergenerational Faith Connection and Growth: EPIC Theory-Based Small Group Model Proposal,"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5), 3.

아울러 공간적 범위를 교회 건물에서 가정의 식탁으로 확장한다. 이는 신재진이 강조한 '식탁 공동체(Table Fellowship)'의 신학적 의미를 수용하여, 밥상머리를 단순한 식사 장소가 아닌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교육이 일어나는 성서적 현장으로 재정의하기 위함이다.¹⁴ 본 연구는 김영래가 제시한 '가족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모델을 적용하여,¹⁵ 3대(조부모-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식탁 하브루타를 통해 감리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전수 모델인 '가정 안의 속회' 기능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론과 실제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근간으로 한다. 특히 김영래가 제시한 '히브리적 사고(Hebrew Thinking)'와 '성경적 스토리텔링' 이론을 핵심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사역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첫째, 문헌 연구 단계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영래가 제시한 '히브리적 사고'의 교육적 원리를 고찰한다. 김영래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육의 한계를 추상적이고 개념 이해 중심적인 '헬라적 사고(Greek Thinking)'의 편중에서 찾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관계적이며 행동 중심적인 '히브리적 사고'로의 회귀를 주장한다.¹⁶ 본 연구는 이 이론에 더 잡아, 화석화된 명제가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로 성경을 전하는 '다시

¹⁴ Jaejin Shin, "Spiritual Healing and Growth through Table Fellowship: Centered on Biblical Teachings and Storytelling,"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5), 3.

¹⁵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신학과 세계』 88(2016): 428.

¹⁶ 김영래, "히브리적 사고와 기독교교육: 히브리적 사고에 기초한 성경 스토리텔링," 『신학과 세계』 96(2019), 182.

성경(ReBible)' 운동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을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삼는다.¹⁷ 또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분석하여, 학습자를 단순한 청취자가 아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제자(Talmidim)'이자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친구(Haverim)'로 초청하는 관계적 교육 원리를 본 연구의 핵심 가치로 정립한다.¹⁸

둘째, 참여 관찰 단계이다. 연구자는 부천교회 현장에서 '비매체적 스토리텔링'과 '하브루타'가 적용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다. 이는 김영래가 강조한 성경 시대의 학습 방법인 '암기(Memorization)'와 '하브루타(Havruta)'의 상호보완적 구조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시도이다. 성경 시대의 암기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내면화(Heart-learning) 과정이라면, 하브루타는 그 말씀을 입 밖으로 꺼내어 소통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다.¹⁹ 연구자는 화려한 디지털 미디어 대신 자신의 육성과 인격에 의존하는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동들이 수동적 관찰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이는 김영래가 제시한 '성육신적 커뮤니케이션(Incarnational Communication)'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만남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직접적 소통이 가져오는 교육적 변혁을 증명하기 위함이다.²⁰ 또한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교회'의 환경 속에서,²¹ 예배의 감동이 가정의 실천으로 이어져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한다.²²

¹⁷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학과 세계』 91(2017), 186.

¹⁸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제자(Talmidim)가 되고 친구(Haverim)를 찾아서," 『신학과 세계』 94(2018), 485.

¹⁹ 김영래, "성경 시대 학습 방법과 기독교교육: 암기와 하브루타," 『신학과 세계』 101(2021), 308.

²⁰ 김영래, "기독교교육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창조적 고찰," 『신학과 세계』 54(2005), 362-383.

²¹ Jung, "A Ministerial Method for Ubiquitous Church,"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2), 3.

²² Kyungsook Lee, "A Study of Family Worship through Tong Bible: Focusing on Tong Bible Family Worship,"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5), 3.

셋째, 질적 심층 인터뷰 단계이다. 사역에 참여한 3040 부모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김영래는 '이야기(Story)'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구성하고 삶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인식론적 도구임을 강조한다.²³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수치화 된 데이터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성도들의 내면적 변화와 신앙의 여정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한다. 인터뷰의 핵심 질문은 정진욱이 제시한 '전기적 스토리텔링(Biographical Storytelling)'의 관점을 차용하여,²⁴ 비매체적 스토리텔링 수용 후 아동의 신앙적 상상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하브루타를 통해 부모의 영적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질문한다.

넷째, 분석 및 종합(Analysis and Synthesis) 단계이다. 수집된 관찰 노트와 인터뷰 전사본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신앙교육 회복의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한다. 특히 디지털 스토리텔링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몰입(Immersion)'과 '공감'의 가치를²⁵ 아날로그적 방식(식탁 하브루타)으로 구현해 낸 부친교회의 사례를 종합하여, 감리교회의 실천적 경건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차세대 사역 매뉴얼을 완성하는 데 일조한다.

D. 용어 정의

1.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COVID-19 Era)

²³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신앙교육을 위한 삶의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탐구," 『신학과 세계』 81(2014), 324.

²⁴ Jinwook Chung, "Biographical Storytelling of David in a View of Transformational Faith,"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3), 3.

²⁵ 김영래,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공감적 이야기 공유를 통한 신앙교육의 모색," 『신학과 세계』 78(2013), 463.

단순히 시간적으로 감염병 종식 이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신앙 생활의 중심축이 교회 건물에서 가정과 일상으로 재편된 새로운 목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서은성은 이 시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분법을 넘어 '올라인(All-Line)'으로 통합되는 시점으로 정의한다.²⁶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과잉으로 인한 '디지털 피로도(Digital Fatigue)'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날로그적 대면성과 경청의 영성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시대로 규정한다.

2. 3040세대의 ‘약한 고리’ (The Weak Link of 3040s)

한국교회의 중추이자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인 3040세대가 직장 and 육아의 이중고 속에서 영적 번아웃으로 인한 신앙 전수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진익창이 분석한 바와 같이, 3040세대가 겪는 사회·경제적 압박이 가정 내 신앙 단절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²⁷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영적 주체'로 다시 세워야 할 핵심 대상으로 정의한다.

3. 오소프락시(*Orthopraxy*, 바른 실천)

올바른 교리적 신념(*Orthodoxy*)을 넘어, 그것이 삶의 양식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바른 실천’을 의미한다. 이는 김영래가 강조한 '히브리적 사고(*Hebrew Thinking*)'의 핵심으로, 얕이 곧 삶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과정을

²⁶ Seo,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ll-Line Ministry in the Post-COVID Era,” 3.

²⁷ Jin, “Intergenerational Faith Connection and Growth,” 3.

뜻한다.²⁸ 본 연구에서는 주일에 들은 메시지가 가정의 식탁에서 하브루타를 통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신앙’의 형성 과정을 지칭한다.

4. 패밀리 크리스천(Family Christian)

신앙의 단위를 개별 신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유기적 공동체로 설정하는 모델이다. 이는 신재진이 제시한 ‘식탁 공동체(Table Fellowship)’ 안에서²⁹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성서적 서사를 공유함으로써 영적으로 소통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3대 통합 설교 및 식탁 하브루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족 신앙 정체성을 뜻한다.

5. 비매체적 스토리텔링(Non-mediated Biblical Storytelling)

시각적 보조 자료(PPT, 영상 등)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설교자의 육성과 호흡만을 활용하는 소통 방식이다. 이는 김영래 교수가 제시한 ‘성육신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만남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직접적 소통을 추구한다.³⁰ 본 연구자는 이를 통해 화려한 영상 매체에 길들여진 다음 세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김택조가 언급한 ‘이야기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³¹ 말씀이 내면화되는 ‘영성 디톡스(Spirituality Detox)’ 과정으로 규정한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가

²⁸ 김영래, "히브리적 사고와 기독교교육," 182.

²⁹ Shin, "Spiritual Healing and Growth through Table Fellowship," 3.

³⁰ 김영래, "기독교교육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창조적 고찰," 383.

³¹ Taikjo Kim, "Teaching the Bible and the Doctrine through Stories at Military Churches in Korea,"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0), 3.

압도하는 시대에 '사람의 온기'가 담긴 원초적 소통(Primal Communication)의 힘을 복원하여 기술과 영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이다.

6. 하이퍼-로컬 사역(Hyper-local Ministry)

거대 담론이나 대형 이벤트 중심의 사역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가장 밀접한 생활권인 ‘집 앞’, ‘우리 동네’, 특히 ‘가정의 식탁’ 이라는 최소 단위의 공간에 집중하는 사역이다. 이는 정찬일 박사가 제시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의 개념을³² 물리적 공간인 부천교회의 '작은 도서관 폐기 및 예배실 전환'과 가정 식탁 사역에 적용한 신학적 배경으로 정의한다.

7. 포텐셜 레이어티(Potential Laity)

가정 내 신앙 전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적 권위와 은사를 재발견한 평신도 사역자 후보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우가 EPIC 이론을 통해 강조한 '참여(Participation)'의 원리에 따라,³³ 수동적 청중이었던 3040 부모가 하브루타 훈련을 거쳐 교회 교육부서의 능동적 사역 주체로 변모하는 ‘사역의 선순환 모델’의 핵심 동력으로 정의한다.

³² Jung, “A Ministerial Method for Ubiquitous Church,” 3.

³³ Youngwoo Kim, “Church and Ministry in the New Normal Era with EPIC,”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3), 24.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해

A. 가정에서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

1. 팬데믹이 가져온 가정의 구조적 전환: 분업에서 통합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 사회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구조를 급격히 재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가정은 교육, 신앙, 생산 기능을 각각 학교, 교회, 직장과 같은 전문 기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공적 공간이 제한되면서 가정은 다시금 교육과 신앙의 중심 공간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가정의 종교적 기능 상실 이후의 재통합 과정’으로 설명하며, 팬데믹이 가정의 신앙교육 기능을 다시 호출한 사건이라고 분석한다.³⁴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가정은 통합된 기능을 감당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혼란을 경험하였다. 김윤민은 이를 두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 형성을 전적으로 교회학교 프로그램과 교역자에게 의존하는 ‘신앙 전수의 외주화(Outsourcing)’ 현상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 내 영적 자생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을 비판한다.³⁵

³⁴ Sehee Lee, “Family Faith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e Untact Era: A Case Study of Hansomang Church, Paju, Korea,”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2), 3.

³⁵ Kim, “Church Education in the Age of the New Normal,” 48.

그러나 팬데믹으로 공적 공간이 강제 폐쇄되면서 가정은 생존, 노동, 학습, 신앙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전일적 공간(Total Space)'으로 급격히 회귀하였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통합을 넘어 가정의 기능적 재정의의를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이러한 통합은 가족 구성원 간의 물리적 밀착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은성의 지적처럼 각자가 디지털 기기에 몰입하여 정서적·영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가족 내 개별화'와 '디지털 과편화'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³⁶ 이와 같은 현상은 Sherry Turkle이 지적한 '함께 있으나 고립된 상태(Alone Together)'와 맥을 같이한다.³⁷ 즉, 디지털 기술은 연결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물리적 근접성이 곧 관계적 친밀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정이 물리적 공존을 넘어 영적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2. 3040 부모세대의 위기와 교육 주체의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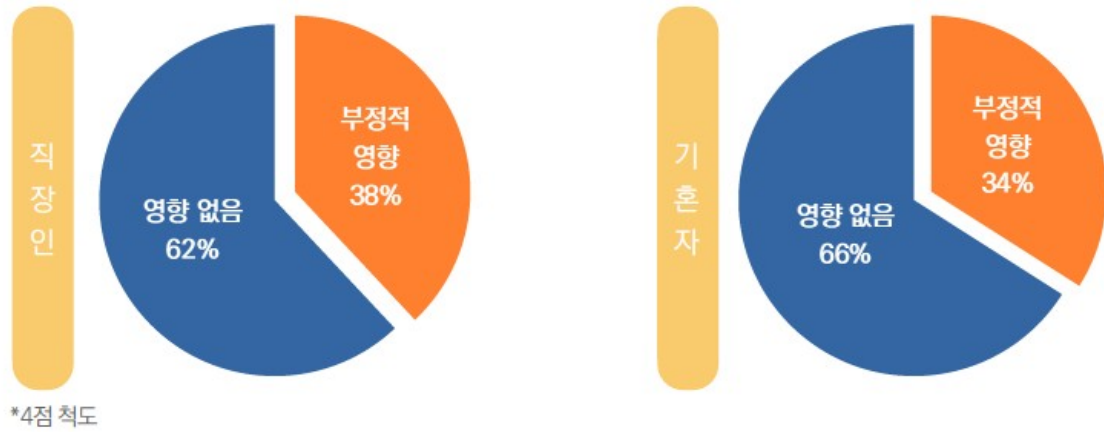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부담을 경험한 집단은 학령기 자녀를 둔 3040 부모세대였다. 이들은 직장과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업무와 양육, 교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압박을 경험하였다. 진익창은 이들을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로 규정하며, 이들의 신앙 약화가 곧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분석한다.³⁸ 실제로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3040세대의 영적 위기를 보여 준다.

³⁶ Seo,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ll-Line Ministry in the Post-COVID Era," 3.

³⁷ Sherry Turkle, *Alone Together* (New York: Basic Books, 2011), 280.

³⁸ Jin, "Intergenerational Faith Connection and Growth,"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5), 3.

<그림2-1> 직장/사회생활/가사/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3040 개신교인)³⁹



<그림2-2> 코로나동안 세대별 신앙수준 변화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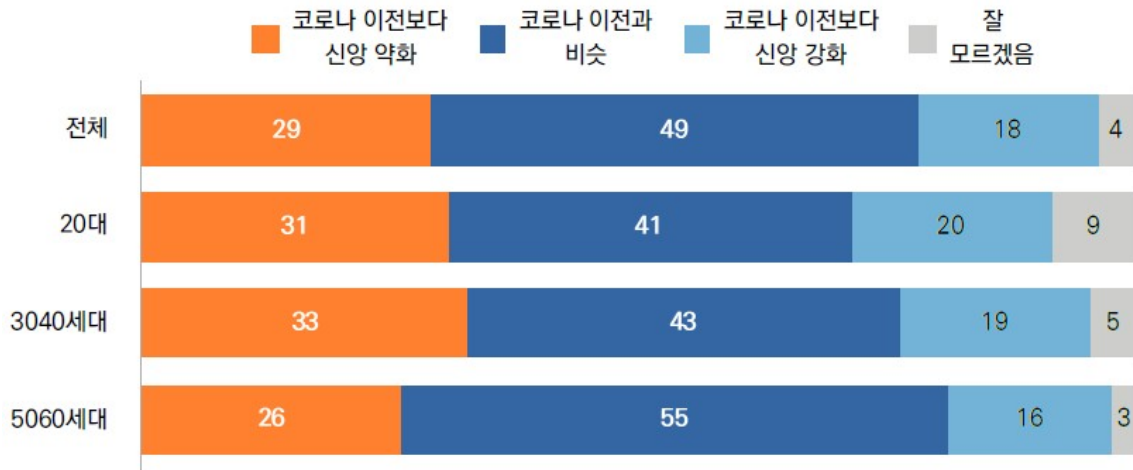


그림 2-1, 2-2의 데이터가 증명하듯, 팬데믹 기간 동안 3040세대의 신앙 지표는 전 세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 태만

³⁹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통계(233호):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넘버즈, https://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85 [2026.3.15. 최종접속].

⁴⁰ Ibid.

때문이 아니라, 직장과 육아의 최전선에서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삶의 무게가 그들을 영적 탈진 상태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교육과 교회학교의 기능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부모에게는 교사, 감독자, 신앙 멘토의 역할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었다. 김윤민은 이 시기 부모들이 겪은 당혹감을 '영적 자율권의 강제적 부여'로 해석한다. 즉, 평소 신앙 교사로서의 훈련이 부재했던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 지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뼈아프게 직면하게 된 것이다.⁴¹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약화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신앙교육의 주체로 호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 내 신앙교육의 공백이 단순히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부모의 '영적 효능감(Spiritual Efficacy)' 결핍에서 기인함을 시사한다. 이는 가정 신앙교육의 지속적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가정 신앙교육의 실태: 신앙 언어의 소실과 히브리적 대화의 부재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학교의 섯다운은 가정 내에 축적된 신앙 자본의 빈곤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서은성은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다음 세대가 경험해야 할 '공동체적 감각'과 '현장성의 영성'이 디지털 스크린 뒤로 사라졌음을 우려한다.⁴² 더 심각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 신앙을 주제로 한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와 신앙 대화를 하지 않는

⁴¹ Kim, "Church Education in the Age of the New Normal," 48.

⁴² Seo,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ll-Line Ministry in the Post-COVID Era," 10-12.

청소년의 비율이 과반에 달한다. 이는 가정 내에서 '신앙 언어(Faith Language)'가 소실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영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지식 전달 위주의 '헬라적 교육 방식'에서 찾는다.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부모들은 신앙교육을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하여 부담을 느끼지만, 성경적 원형인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신앙교육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이야기(Storytelling)'와 '대화'임을 강조한다.⁴³ 김영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의 전달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성육신적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주문한다. 즉, 현재 가정의 위기는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영적으로 연결하는 '서사적 대화 구조'의 붕괴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학교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정 내 신앙교육의 실태는 '신앙 언어의 부재'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간 신앙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소통 부족을 넘어, 가정 내 신앙 구조 자체가 약화되었던 것이다. 김영래가 말하듯이 이때 신앙을 지식 전달의 대상으로 이해할 경우, 부모는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앙교육을 회피하게 된다. 이에 반해 '히브리적 사고'는 신앙교육을 삶 속 이야기와 관계 중심의 대화로 이해한다. 이는 부모가 완벽한 교사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행자로서 역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의 과제: '식탁 공동체'와 '작은 교회'로의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의 핵심 과제는 가정을 '작은 교회(*Ecclesiola*)'

⁴³ 김영래, "히브리적 사고와 기독교교육," 182.

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세회는 가정이 더 이상 교회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 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⁴ 즉 가정이 교회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신앙교육의 중심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신재진이 제안한 ‘식탁 공동체(Table Fellowship)’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 실천 공간으로 주목된다.⁴⁵ 식탁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신앙 이야기와 삶의 경험이 공유되는 교육적 장소가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정의 식탁은 파편화된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교육이 일어나는 성서적 현장이 되어야 한다. 결국 가정의 회복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스토리텔링'과 자녀의 질문이 오가는 '하브루타'를 통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은 Andy Crouch가 제시한 ‘기술 시대의 가정 회복’ 과도 연결된다. 그는 가정이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의미를 형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⁴⁶ 결국 가정 신앙교육의 회복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 속 관계와 대화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김윤민이 제안하듯,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가정은 비로소 팬데믹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견고한 요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⁴⁷

⁴⁴ Lee, “Family Faith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e untact era,” 3.

⁴⁵ Shin, “Spiritual Healing and Growth through Table Fellowship,” 3.

⁴⁶ Andy Crouch, *The Tech-Wise Family* (Grand Rapids: Baker Books, 2017), 45.

⁴⁷ Kim, “Church Education in the Age of the New Normal,” 48.

B. 교회에서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

1. 팬데믹이 교회에 가한 충격: 공간의 상실과 공적 신뢰의 위기

팬데믹은 한국교회가 굳게 믿어왔던 '성장 신화'와 '건물 중심의 목회'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서은성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방역 문제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신뢰도가 20-30%대로 급락한 현상을 '공적 정당성의 위기'로 진단한다. 이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계도화(Ghettoization)되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⁴⁸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교회가 방역 지침에 따라 물리적 공간인 예배당 문마저 닫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었다. 결국 공간의 상실은 한국교회가 절대시해 왔던 '모이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도식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하였고, 역설적으로 건물을 떠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강제로 각성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2. 하이브리드 목회와 '올라인(All-Line)' 사역의 등장

위기 속에서 교회는 생존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했다. 초기에는 임시방편으로 여겨졌던 온라인 예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서은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대립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두 영역이 상호 보완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올라인(All-Line) 사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⁴⁸ Seo,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ll-Line Ministry in the Post-COVID Era," 3.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차원을 넘어, 목양, 교육, 선교의 전 영역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을 지향하는 것이다.⁴⁹ 이사야 박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콘텐츠 송출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⁵⁰ 이는 디지털 공간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통로가 아니라, 성도들이 참여하며 소통하는 곳이다. 즉, 영적 경험을 공유하는 실재적 목회 현장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유비쿼터스 교회와 새로운 참여 방식의 요청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교회론의 확장을 가져왔다. 정찬일은 5G와 IoT 기술이 보편화된 시대에 교회는 특정 장소에 매인 건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회(U-Church)'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⁵¹ 김영우 박사는 이러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특징을 디지털 융합과 유비쿼터스 혁명의 가속화로 정의한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단순한 '접속(Connection)'을 넘어 진정성 있는 '참여(Participation)'와 '경험'을 갈망한다고 분석한다.⁵²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온라인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수동적 관람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경험 중심의 목회'를 구현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스토리텔링(경험)'과 '하브루타(참여)'가 가정과 교회 교육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⁴⁹ Ibid.

⁵⁰ Lee, "A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Online Church Content Development in the Post-Pandemic Era," 5.

⁵¹ Jung, "A Ministerial Method for Ubiquitous Church," 3.

⁵² Kim, "Church and Ministry in the New Normal Era with EPIC," 3, 24-26.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과제: 가정과의 연계와 사역의 본질 회복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건물'에서 '사람'으로, '프로그램'에서 '관계'로 목회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 김윤민과 서은성은 공통적으로 '교회와 가정의 연계(Church-Home Connection)'를 미래 사역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⁵³ 교회는 더 이상 가정을 교육의 객체로 두지 말고, 부모를 동역자로 세워 가정 내 신앙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권복음이 제안한 대로,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되 급변하는 시대적 트렌드와 다음 세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⁵⁴ 이것이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남긴 과제이자, 새로운 부흥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석은 우리에게 명확한 목회적 대안을 요청한다. 디지털 과잉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시대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소통 방식인 ‘이야기(Storytelling)’와 ‘질문(Havruta)’의 회복이 시급하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이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성서가 증언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 전수의 원형임을 신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⁵³ Kim, “Church Education in the Age of the New Normal,” 48; Seo,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ll-Line Ministry in the Post-COVID Era,” 3.

⁵⁴ Bokeum Kwon, “A Study on the Church that Attracts the Young Generation First: Focusing on the Case of Jeonju University,”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3), 3.

Ⅲ. 가정 내 기독교교육의 성서적 기초

본 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 신앙교육의 회복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교육 이론 중 특별히 김영래 교수의 ‘히브리적 사고’와 ‘성서적 스토리텔링’을 본 연구의 핵심 신학적 기저로 채택한다. 이는 서구의 분석적(헬라적)사고가 간과했던 ‘전인적 체험’과 ‘관계적 소통’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이 회복해야 할 신앙교육의 본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과 성서적 스토리텔링(Biblical Storytelling)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야기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성경은 교리적 명제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구속사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static)인 개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이야기의 주관자’ 이시다. 김영래는 성경을 단순한 교리나 명제의 집합체가 아닌,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거대한 드라마(The Great Drama)의 기록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이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⁵⁵ 이러한

⁵⁵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186.

관점은 성경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존재론적 변화를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 수단으로 ‘이야기’를 택하신 이유는 인간의 기억과 정체성이 본래 서사적(narrative)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야기가 인간의 전인격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사적 이해는 현대 해석학에서도 강조된다. 폴 리쾨르(Paul Ricoeur)는 이를 두고 '이야기는 인간의 시간과 존재를 구성하는 틀'이라고 정의했다.⁵⁶ 즉,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기독교적 시간관과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존재가 이야기 속에서 이해된다는 말이며, 이야기가 개인의 정체성과 시간 인식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Jerome Bruner는 인간의 인식 방식이 논리적 사고뿐 아니라 ‘서사적 앎(Narrative Knowing)’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⁵⁷ 즉,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세계를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적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교수법이 아니라, 인간 존재 방식과 부합하는 신앙 형성 방식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신학적 행위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의 서사를 시작하셨고(창 15:5), 야곱의 베엘 사건이나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한 개인의 미시적 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 구원 서사와 맞물리는지를 보여주셨다. 김영래 교수는 이러한 성서적 스토리텔링이 오늘날 가정에서 '다시 성경(ReBible)'

⁵⁶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303-305

⁵⁷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11.

운동으로 재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⁵⁸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의 지식 정보를 주입하는 것을 넘어, 자녀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여 그 이야기의 일원이 되게 하는 영적 초청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파편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는 그들의 삶에 신앙적 맥락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견고한 신학적 기초가 된다.

B. 질문하시는 하나님과 성서적 하브루타(Biblical Havruta)

성서적 하브루타의 원형은 인간을 일방적 지시의 대상이 아닌, 인격적인 대화의 상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소통 방식에 기원을 둔다. 김영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신다는 점에 주목한다.⁵⁹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향해 던지신 “네가 어디 있느냐?” (창 3:9)라는 질문이나, 가인을 향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 4:9)와 같은 질문은 정보 획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실존적 위치를 성찰하고 답을 찾게 만드는 ‘교육적 촉매’로서의 질문이다. 이는 인간을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응답자로 세우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질문의 방식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라고 물으셨다. 이는 제자들이 군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이끄는 전형적인 하브루타식 교수법이었다.⁶⁰ 이로써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으로 스스로 고백하도록 이끌리게 된다. 이는 파울로

⁵⁸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159.

⁵⁹ 김영래, “성경 시대 학습 방법과 기독교교육: 암기와 하브루타,” 279.

⁶⁰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465-467

프레이리(Paulo Freire)가 비판한 ‘은행 저축식 교육’ 과 대조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과 대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⁶¹ 또한 비고츠키 역시 “학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다”⁶²라고 보며,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식 능력을 확장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방식은 가정 내 신앙교육이 선포(Kerygma)를 넘어 상호적인 소통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질문은 자녀를 수동적인 청취자에서 능동적인 사유의 주체로 변화시킨다. 부모가 가정에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신학적 고백이며, 이는 하브루타가 단순한 유대인의 학습법을 넘어 성경적 인간관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증명한다. 김영래는 이를 통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Heart-learning) 내면화되는 과정이 완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방식을 ‘하브루타적 교육 구조’ 로 해석하며, 질문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⁶³ 따라서 하브루타는 단순한 유대 학습법이 아니라, 성경적 인간 이해에 기초한 교육 방식이며, 가정 신앙교육의 핵심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C. 구약성경 속 가정 내 기독교교육의 실제: 사건과 전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은 신앙 형성의 중심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⁶¹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1970), 72.

⁶² Lev Vygotsky,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57.

⁶³ *Ibid.*, 308.

앤디 크라우치(Andy Crouch)는 “가정은 인간 형성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장소이다”⁶⁴라고 강조하며, 신앙 역시 가정에서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이다”⁶⁵라고 말하며, 반복되는 실천과 습관이 인간의 존재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사회는 산업화 이후 가정이 종교적 기능을 교회에 위탁해버렸으나, 성경적 원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한다.⁶⁶

1. 쉼과 부모의 교육적 사명

신명기 6장 4-9절의 '쉐마'는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대헌장이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닌 부모에게 직접 수여하셨다. 이사회는 이를 ‘삶과 통합된 교육 구조’로 해석하고, 신앙교육이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즉 쉼과 가정 교육의 본질이며, 부모가 앉았을 때 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Storytelling & Havruta)해야 함을 의미한다.⁶⁷ 여기서 '가르치다(샤난)'는 '뽀족하게 찌르다'는 뜻을 내포하는데, 이는 반복적인 이야기와 날카로운 질문(하브루타)을 통해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기는 각인(Imprinting)의 과정을 뜻한다.⁶⁸

⁶⁴ Andy Crouch, *The Tech-Wise Family* (Grand Rapids: Baker Books, 2017), 45.

⁶⁵ James K. A. Smith, *You Are What You Love*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6), 18.

⁶⁶ Lee, “Family Faith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e Untact Era,” 3.

⁶⁷ Ibid.

⁶⁸ 김영래, “성경 시대 학습 방법과 기독교교육,” 286.

2. 유월절과 질문 중심 교육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시며 자녀의 질문을 상정하신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됴이나 하거든” (출 13:14). 이 구절은 신앙교육이 질문과 답변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대화적 학습(dialogical learning)’ 과도 연결된다.⁶⁹ 이때 부모는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이라는 시각적 교재를 활용해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어야 했다. 실제로 유대 전통에서는 유월절 식탁에서 자녀가 "오늘 밤은 다른 밤들과 무엇이릅니까?"(Ma Nishtana)라는 4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의무화되어 있다.⁷⁰ 이 질문이 던져질 때 비로소 가장은 준비된 답변이 아닌, 살아있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유월절 식탁은 자녀의 호기심(질문)과 부모의 신앙 고백(이야기)이 만나는 성서적 하브루타의 완벽한 모델이다.

3. 길갈의 열두 돌: 시각적 기억 장치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세운 열두 돌은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수 4:6)라고 물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시청각적 장치였다. 즉 여기에서 열 두 돌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자녀의 질문을 유도하는 교육적 장치였던 것이다. 구약의 교육은 이처럼 일상의 사건과 사물을

⁶⁹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Collins, 1980), 134.

⁷⁰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10-412;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125.

매개로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또한 신앙교육이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경험과 기억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D. 신약성경 속 가정 내 기독교교육의 모델: 오이코스(Oikos)와 경건의 전수

신약성경은 가정을 뜻하는 ‘오이코스(Oikos)’를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세대와 인종을 넘어 전수되는지 구체적인 실제 모델들을 제시한다. 이세희 박사는 신약의 가정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강조한다.⁷¹

1. 디모데 가정의 3대 신앙 전수

디모데의 가정은 모계(母系)를 통한 신앙 전수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시한다(딤후 1:5). 특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딤후 3:15)는 기록은, 유대 전통에 따라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정에서 구약의 서사를 들려주고(Storytelling), 그 의미를 문답하는(Havruta) 지속적인 과정이 있었음을 입증한다. 이는 디모데의 믿음이 공적인 회당 교육보다 가정이라는 친밀한 공간에서 형성된 ‘내면화된 신앙’임을 보여준다. 이는 가정이 신앙 형성의 핵심 공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⁷¹ Lee, “Family Faith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e Untact Era,” 3.

2. 고넬료 가정의 구원과 가장의 역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이방인 가정 교육의 원형을 보여준다. 성경은 그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행 10:2)라고 묘사한다. 이세희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행 10:33)라고 고백한 장면이 주목한다. 이는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공동체를 경청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영적 리더십의 표본이다. 이는 하브루타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열린 질문의 환경'을 가장이 주도적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닫혀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부모의 역할 모델이 된다. 그래서 이세희는 이 이야기를 '가정 중심 신앙 공동체'의 전형으로 해석한다.⁷²

3.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과 하브루타

김영래는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엠마오 도상의 대화를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하브루타'가 결합된 최고의 교육적 사례로 꼽는다.⁷³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정답을 주입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눅 24:17)라고 질문하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셨다. 그 후 성경의 서사를 풀어 주시며(Interpreting Story)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이는 오늘날 부모가 자녀의 고민을 먼저 듣고(질문),

⁷² Ibid.

⁷³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453, 485.

성경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가정 신앙교육의 원형이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질문하시고, 이후 이야기를 풀어주며,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과정은 스토리텔링과 하브루타가 결합된 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IV. 학습 방법으로서의 스토리텔링

본 연구가 수많은 교수법 중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화려한 미디어가 아이들의 시각을 점령한 시대에, 설교자의 육성과 침묵을 통한 ‘청각적 자극’만이 아이들의 마비된 상상력을 깨우고 하나님의 현존을 감각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을 단순한 전달 기법이 아닌, 인간의 인식 구조와 신앙 형성 과정에 깊이 뿌리내린 교육 방법으로 재조명 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이 갖는 교육적·영성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A.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서사적 앎(Narrative Knowing)'과 '다시 성경(ReBible)'

1. 패러다임적 앎을 넘어 서사적 앎으로

기독교교육의 오랜 난제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에 있었다. 김영래는 현대 교육이 과학과 논증을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적 앎(Paradigmatic Knowing)'에 편중되어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제롬 브루너(Jerome Bruner)에 따르면, 패러다임적 앎은 "논리적-과학적 유형(logico-scientific mode)"으로서 경험적

진리를 입증하고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다.⁷⁴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을 담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브루너는 '서사적 앎(Narrative Knowing)'을 제시한다. 서사적 앎은 인간의 의도(Intention)와 행동(Action), 그리고 그 결과에 관심을 두며, "뽀진성(Verisimilitude)과 실물감(Lifelikeness)"을 통해 삶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방식이다.⁷⁵ 김영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실 때, 추상적인 명제가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택하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성경 교육이 패러다임적 교리 전달을 넘어 서사적 앎을 통한 전인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⁷⁶

다시 말하자면 현대 교육은 주로 논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적 앎(Paradigmatic Knowing)'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인간의 삶과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Jerome Bruner는 인간 이해의 두 가지 방식으로 '논리적 사고'와 '서사적 사고'를 구분하며, 특히 인간의 삶은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즉 서사적 앎은 사건, 인물, 갈등, 해결이라는 구조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며, 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기본 틀로 작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단순한 교리집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거대한 서사이다. 따라서 성경 교육 역시 논리적 설명보다 이야기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⁷⁴ Jerome Bruner, "Narrative and Paradigmatic Modes of Thought," in *Learning and Teaching The Ways of Knowing*, ed. Elliot Eisner(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97;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299에서 재인용.

⁷⁵ Jerome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11;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300에서 재인용.

⁷⁶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298.

2. 다시 성경(ReBible): 텍스트의 감옥에서 해방된 살아있는 음성

김영래는 '다시 성경(ReBible)' 운동을 제창한다. 그는 성경을 문자로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다시 이야기로 살아나야 할 'ReBible' 로 이해한다. 이는 인쇄술과 학교 교육으로 인해 문자로 박제된 성경을 다시 구술의 생명력을 가진 '이야기'로 복원하는 신학적 작업이다. 성경은 본래 묵독(Silent Reading)이 아닌 낭독(Reading Aloud)과 청취(Listening)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었다.⁷⁷ 이 말은 성경이 본래 낭독과 청취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이야기의 형태로 기억되고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교육 기법이 아니라, 성경 본래의 전달 방식으로서의 회귀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현재화(present)'이다. 즉,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삶과 연결될 때 신앙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ReBible'로서의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동화 구연이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서(Pathos)와 의도(Logos)를 스토리텔러의 육성을 통해 '현재화(Present)'하는 성례전적 행위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영래는 이 과정을 '청취(Listening)-탐구(Exploring)-실천(Practicing)'의 3단계로 구조화 한다.⁷⁸

청취(Listening): 학습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공감각적으로 경험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들음(Hearing)이 아니라, 전인격적 반응을 요구하는 '쉐마(Shema)'로서의 청취이다. 특히 차가운 기계음이 아닌 부모의 육성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정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인격적

⁷⁷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165.

⁷⁸ Ibid., 186.

존재로 감각하게 하는 결정적 매개체가 된다.

탐구(Exploring): 이야기를 들은 후 학습자는 자신의 삶을 성경의 서사에 비추어 재해석한다. 이때 상상력은 성경의 세계와 학습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탕자의 형이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의 텍스트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해석하는 거울로 작동하게 된다.

실천(Practicing): 내면화된 이야기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표출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와 가정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완성이다. 결국 스토리텔링은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The Great Drama)에 참여하여 그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B. 침묵의 미학: 비매체적 스토리텔링

1. 침묵(Pause): 상상력이 깃드는 창조적 여백(Creative Margin)

a. 디지털 소음과 '공백 공포(Horror Vacui)'의 극복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 학습자의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현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0.1초의 정적도 방송 사고로 간주하는 '공백 공포(Horror Vacui)'에 시달린다. 틱톡(TikTok)이나 유튜브 쇼츠(Shorts)와 같은 숏폼 콘텐츠는 시청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틈(Gap)을 삭제한 '점프 컷(Jump Cut)'

편집을 남발하며, 뇌가 정보를 처리할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시각적·청각적 자극을 주입한다. 이러한 '무호흡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는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인지적 주권을 상실한 채,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다.⁷⁹ Sherry Turkle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관계와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며, 깊이 있는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⁸⁰ 또한 Andy Crouch는 기술 중심 문화가 인간의 형성(formational life)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한다.⁸¹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화려한 시청각 자료에 의존한 교육은 오히려 학습자의 능동적 사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연구자가 제안하는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은 설교자의 육성 뿐만 아니라, 의도된 '침묵(Pause)'을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한다.

b. '셀라(Selah)'의 교육학적 재현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시각 자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방식이다. 그래서 성서적 스토리텔링에서 침묵은 말의 부재(Absence)가 아니라,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는 '현존(Presence)'의 시간인 셈이다. 시편에 70회 이상 등장하는 '셀라(Selah)'는 악기의 연주를 멈추거나 목소리를 높여 묵상하게 하는 음악적 지시어이자 영적 쉽표이다.⁸² 즉, 성경의 '셀라(Selah)'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의미를 묵상하고 내면화하는 시간이다. 김영래가 지적한 대로, 히브리적 사고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보다 그것을 음미하고

⁷⁹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최준영 역(서울: 청림출판, 2011), 169.

⁸⁰ Turkle, *Alone Together*, 280.

⁸¹ Crouch, *The Tech-Wise Family*, 45.

⁸² 시 32:4, 7.

체화 하는 과정을 중시한다.⁸³ 스토리텔링 중에 발생하는 설교자의 침묵은 아이들에게 바로 이 '셸라'의 순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침묵은 정보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내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적 도구이다.

c. 인지적 참여를 유도하는 '초대의 공간'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 설교자가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잠시 침묵할 때 교육적 기적이 일어난다. 디지털 기기는 멈추면 '정지 화면'이 되지만, 스토리텔러가 멈추면 청중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 고요한 틈(Gap) 사이로 아이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여리고 성벽의 긴장감을 그려내고, 숨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된다. 즉, 침묵은 설교자가 독점했던 이야기의 주도권을 잠시 내려놓고, 청자인 아이들이 자신의 상상력으로 이야기의 빈칸을 채우도록 이끄는 '초대의 공간'이다. 따라서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에서의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아이들을 성경의 세계로 깊이 끌어들이는 가장 역동적인 '비언어적 소통'이다.⁸⁴ 이렇듯 시각 자료가 제공될 경우 학습자는 이미 구성된 이미지를 소비하게 되지만, 이야기만 제공될 경우 학습자는 스스로 장면을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학습자를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⁸³ 김영래, "히브리적 사고와 기독교교육," 159.

⁸⁴ Kim, "Church and Ministry in the New Normal Era with EPIC," 25.

C.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탈미딴(Talmidim)을 넘어 하베림(Haverim)으로

1. 비유(Parable): 닫힌 결말을 거부하는 열린 초대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스토리텔러였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비유(parable)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난해한 신학 용어가 아닌, 씨 뿌리는 농부, 잃어버린 양, 돌아온 탕자 등 일상의 언어와 '비유(Parable)'를 통해 가르치셨다. 김영래는 예수님의 비유가 청중을 수동적인 청취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며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는 '열린 구조(Open Structure)'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다.⁸⁵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36)와 같이 질문을 던지심으로, 청중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이야기의 결말을 자신의 삶으로 완성하도록 이끌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고 정답을 주입하지 않으시고, 청중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리셨다. 이는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가 비판한 정답 주입식의 '은행 저축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신앙적 진리를 발견하고 구성해가는 '문제 제기식 교육'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⁸⁶

2. 관계적 교육: 발 아래의 제자에서 식탁의 친구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간의 관계는 오히려 약화되는 역설을 보인다. 웨리

⁸⁵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465.

⁸⁶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72.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 피억압자의 교육학』 남경식 역(서울: 그린비, 2011), 98-102.

터클(Sherry Turkle)은 이를 두고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고립되어 있다”⁸⁷고 표현하며, 기술이 관계의 깊이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또한 “대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⁸⁸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가정 내 신앙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적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마치 이미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감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은 정보 전달이 아닌 '관계 형성'을 지향했다. 김영래 교수는 이를 '탈미담(Talmidim, 제자)'과 '하베림(Haverim, 친구)'의 역동적 관계로 설명한다.⁸⁹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배우는 '탈미담'이다. 이때 스토리텔링은 스승의 권위와 지혜를 전수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육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 안에서 대등하게 소통하고 동역하는 '하베림'으로 초청하셨다(요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이 선언은 수직적인 가르침의 관계가 수평적인 사랑의 교제로 승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부모 역시 자녀의 영똥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새로운 영적 통찰을 얻는 '상호 학습(Mutual Learning)'이 일어난다. 따라서 가정 내 기독교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부모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말씀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가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Table Fellowship)'를 형성하여, 자녀를 평생의 신앙 동지(하베림)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토리텔링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렇듯 예수님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관계 형성을

⁸⁷ Turkle, *Alone Together*, 1.

⁸⁸ Sherry Turkle, *Reclaiming Conversation* (New York: Penguin Press, 2015), 3.

⁸⁹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480-485.

지향하였다. 따라서 제자들은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는 공동체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계적 교육을 Stanley Hauerwas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덕성과 정체성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⁹⁰ 이러한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전달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이해될 수 있다.

⁹⁰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12.

V. 학습 방법으로서의 하브루타

본 장에서는 하브루타를 단순한 학습 기술이 아닌, 신앙의 내면화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구조로 재해석한다. 특히 암기와 토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암’이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A. 하브루타 속 암기: 창의성을 위한 내면화, '하트 러닝(Heart-Learning)'

앞선 스토리텔링이 말씀의 ‘입력(Input)’이라면, ‘하브루타’는 그것을 삶으로 ‘출력(Output)’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유대인의 전통 학습법인 하브루타를 단순한 지능 개발 도구가 아닌, 수직적 위계질서에 갇힌 한국 가정의 소통 구조를 수평적 영적 교제로 전환시키는 ‘목회적 도구’로서 재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1. 암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고의 활주로

현대 진보주의 교육은 암기를 창의성을 저해하는 낡은 주입식 교육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적 교육 전통에서 암기는 사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었다. 그래서 김영래는 성경 시대의 학습법인 '히브리적 사고(Hebrew Thinking)'에서 '암기(Memorization)'는 학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창의적 토론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강력하게 변증한다.⁹¹ 유대 교육 전통인 '미슈나(Mishnah)'는 '반복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텍스트가 내면에 정확하게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상황의 해석과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래는 "자기가 배운 것을 100번 반복하는 사람은 그것을 101번 반복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탈무드의 격언을 인용하면서 반복적 암기가 사고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활주로를 강조한다.⁹² 때문에 김영래는 히브리적 사고에서 암기가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텍스트가 내면에 저장되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의미 있는 사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암기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2. 하트 러닝(Heart-Learning): 지성을 넘어선 전인적 새김

성경적 암기는 기계적 반복을 통해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말씀을 마음판(Heart)에 새기는 '하트 러닝(Heart-Learning)'의 과정이다.⁹³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테필린), 집 문설주에 기록(메주자)함으로써 삶의 모든 물리적 환경을 말씀으로 채웠다. 이는 암기가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니라, 몸과 생활 공간 전체가 말씀과 하나 되는 체화(Incarnation)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신명기 6장의 웨마 명령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로 시작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로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⁹¹ 김영래, "성경 시대 학습 방법과 기독교교육," 280.

⁹² Ibid., 297.

⁹³ Ibid., 289.

아니다. 김영래는 암기가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체화(Incarnation)하는 영적 훈련임을 강조한다. 또한 James K. A. Smith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반복과 습관이 인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⁹⁴ 따라서 암기는 단순한 학습 방법이 아니라, 신앙을 형성하는 영적 훈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 예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다. 이는 이어질 치열한 하브루타 토론을 위해 공유된 텍스트를 확보하는 과정이며, 말씀이 자녀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려 평생의 가치관으로 작동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교육적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다.

B. 하브루타 속 토론: 앎을 삶으로 번역하는 용광로

1. 베이트 미드라쉬(Beit Midrash)의 소음: 질문과 논쟁

암기가 말씀을 '먹는' 과정이라면, 하브루타는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다. 김영래는 하브루타를 '짜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 방법'으로 정의함으로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의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육 모델이라고 설명한다.⁹⁵ 유대인의 공부방인 '베이트 미드라쉬(Beit Midrash)'는 침묵이 강요되는 도서관이 아니라, 시끄러운 토론의 소음이 가득한 시장판과 같다. 이곳에서는 '샤클라 배타리아(Shakla v'Tarya)', 즉 '주고받기'의 원리가 작동한다. 학습자는 끊임없이 "왜?"라고 묻고,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하며,

⁹⁴ James K. A. Smith, *Desiring the Kingdom*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25.

⁹⁵ 김영래, “히브리적 사고와 기독교교육,” 175.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김영래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수동적인 지식 수용자(Receiver)에서 능동적인 지식 구성자(Constructor)로 변모한다고 분석한다.

이렇듯 하브루타는 질문과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방식이다. 그래서 Orit Kent는 하브루타를 “텍스트를 중심으로 짝과 함께 질문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⁹⁶으로 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2. 가정 식탁, 치열한 소통과 거룩한 논쟁의 장

가정의 식탁은 현대판 베이트 미드라쉬(Beit Midrash)가 되어야 한다. 김영래 교수는 하브루타가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말씀을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하는(Connect) 실천적 지혜를 낳는다고 본다.⁹⁷ 예를 들어 "만약 네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힘든 명령을 내리셨을까?"와 같은 질문들이 오갈 때 자녀의 영적 사고력은 비로소 깨어난다. 부모가 던지는 질문은 자녀의 잠자던 사고를 깨우고, 자녀의 엉뚱한 질문은 부모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과정'이다. 서로 다른 해석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하베림(Haverim), 곧 친구이자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깔려 있다. 김영래는 이를 통해 신앙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⁹⁶ Orit Kent, *A Philosophy of Havruta* (Waltham: Mandel Center, 2010), 8.

⁹⁷ 김영래, “성경 시대 학습 방법과 기독교교육,” 296.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임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하브루타는 부모의 가르침을 상호 배움(Co-learning)으로 전환시키며, 가정을 지식 전수의 장에서 신앙적 인격과 삶을 빚어내는 뜨거운 용광로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다시 말해 하브루타의 특징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논쟁(argumentation)’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유대 전통의 학습 공간인 베이트 미드라쉬(Beit Midrash)는 침묵이 아닌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Paulo Freire는 이러한 대화적 학습이 학습자를 능동적 주체로 변화시킨다 했다.⁹⁸

C. 가정 식탁에서의 하브루타 적용

1. 식탁 공동체: 현대적 베이트 미드라쉬

가정의 식탁은 하브루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이다. 신재진은 식탁을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관계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로 이해한다.⁹⁹ 이러한 식탁 공동체는 성경적 교육 방식과 현대 가정 환경을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이다.

2. 질문을 통한 신앙 형성

가정에서의 하브루타는 부모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⁹⁸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72.

⁹⁹ Shin, *Spiritual Healing and Growth through Table Fellowship*,” 3.

-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와 같은 질문은 자녀의 사고를 자극하며, 신앙을 개인의 경험으로 연결시킨다.

3. 상호 학습(Co-learning) 구조

하브루타는 일방적 가르침이 아니라 상호 학습 구조를 형성한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반자가 된다. Stanley Hauerwas 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형성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¹⁰⁰ 이러한 구조는 가정 신앙교육을 권위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환시킨다.

D. 하브루타의 신학적 의미

하브루타는 단순한 교육 방법을 넘어, 성경적 인간 이해와 공동체 이해에 기초한 신학적 실천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화하고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질문과 대화를 통한 학습은 인간의 본질과 부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브루타는 가정 신앙교육의 핵심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¹⁰⁰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12.

VI.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의 실제적 적용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부천교회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된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 모델’을 분석한다. 본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 도입이 아니라, 공간·예배·가정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은 ‘준비기(공간)-도입기(교회/예배)-심화기(가정/식탁)’의 3단계로 이어졌으며, 각 단계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예배 형식의 변화, 그리고 가정 내 소통 구조의 변화로 확장되는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실제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며 검증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A. 준비기: 교육환경의 물리적·신학적 재구성

1. 교회학교의 환경: 멈춰버린 시간과 점유된 공간

a. 13년의 공백과 교단 교육의 구조적 한계

연구자가 2025년 3월, 13년 만에 부천교회 교육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마주한 첫인상은 '시간의 정지'였다. 2012년 연구자가 사역을 마치고 떠날 당시 사용했던 교육 기자재의 흔적들이 2025년의 캐비닛 속에서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그러나

연구자에게 가장 큰 충격과 목회적 고민을 안겨준 것은 낡은 기자재 그 자체가 아니라, 캐비닛 깊은 곳에서 발견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발행 분반 공과'들이었다. 감리교회(Methodist Church)의 교육 현장에서 칼빈주의(Calvinism) 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장로교단의 주력 교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신학적·교육적 함의를 지닌다. 웨슬리안(Wesleyan)의 신학적 전통과 강조점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교육 담당자들이 타 교단의 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현장 사역자들의 말 못 할 '목회적 비애'가 서려 있었다.

이는 당시 감리교단이 제공하던 교육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타 교단(장로교 통합)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뼈아픈 지표이다. 현장의 교사와 교역자들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Identity)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더 시급했을 것이다. 즉, 신학적 어색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 했던 그들의 선택은 나태함이 아닌, 적박한 지원 환경 속에서 최선을 찾으려 했던 '교육지책(苦肉之策)'이었던 셈이다.

결국 이 낡은 타 교단 공과들은 지난 10여 년간 부천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 교단적 자부심이나 신학적 뚜렷함 없이, 외부 콘텐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콘텐츠 빈곤' 상태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단순히 새로운 교재를 구매해서 비치하는 수준을 넘어, 감리교의 신학적 유산 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토착화된 커리큘럼(스토리텔링과 하브루타)'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b. 멈춰버린 선교적 비전과 주객이 전도된 공간

물리적 환경의 문제는 더욱 복합적인 목회적 고민을 안겨주었다. 당시 교회 교육관 1층에 위치한 약 30평 규모의 공간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건축학적으로 이곳은 교회 내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공간이었다. 턱이 없는(Barrier-free) 1층 구조 덕분에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 유모차를 끌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최적의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었다.

사실 이 공간은 방치된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의 깊은 목회적 고뇌와 '공공 신학(Public Theology)'적 비전이 투영된 장소였다. 담임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담을 쌓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지역과 호흡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부천시가 실시하는 '작은 도서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교회 공간 중 가장 좋은 1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내어주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이곳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접착점이었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 아동들을 섬겼고, 끊임없이 책을 기증하고 나누며 '마을 속의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의 위기는 이러한 교회의 헌신마저 집어삼켰다. 대면 접촉이 전면 금지되면서 활발했던 독서 지도 프로그램은 중단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발길도 끊기게 되었다. 불가항력적인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10년의 땀과 눈물이 서린 선교적 공간은 점차 기능을 상실해갔다. 결국, 연구자가 부임했을 때 이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3,000여 권의 낡은 장서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먼지 쌓인 창고'로 전락해 있었다. 유모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귀한 공간에, 정작 아이들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장면을 마주한 연구자의 마음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했다. 그것은 팬데믹의 파도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선배 사역자들과 교회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자,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회의 구조적 모순-다음 세대 공간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현상-을 다시금 목격한 데서 오는 거룩한 부담감이었다. 연구자가 이전 사역지들에서 겪었던 "변하지 않는 구조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는 이곳 부천교회의 현실과 겹쳐지며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했다.

"이대로 두면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 연구자는 이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과거의 헌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판단했다. 진정으로 교회의 지난 10년 노력을 계승하는 길은, 죽은 책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다시금 아이들의 숨결로 채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즉, 과거의 유산(책)을 비워내고 현재의 생명(아이들)을 채우는 것만이, 담임목사가 꿈꾸었던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재건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섰다.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소명 의식은 이어지는 3.3톤의 폐기와 공간 혁명을 단행하게 만든 결정적인 영적 도화선이 되었다.

2. 공간의 혁명: 3.3톤의 폐기와 유비쿼터스 예배실 확보

a. 3.3톤의 폐기와 거룩한 연대: 성전 정화의 목회적 재현

연구자는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3.3톤에 달하는 서적과 집기를 폐기하는 과정은, 교회가 지난 10년간 붙들고 있었던 '보여주기 식 사역'의 허상을 걷어내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신학적 투쟁이자 '공간적 회개'의 과정이었다.

1) 형식의 우상 타파와 목회적 용기

당시 도서관을 채우고 있던 3,000여 권의 장서와 육중한 책장들은 역설적이게도 '형식의 우상'이 되어 있었다. 이용하지 않는 낡은 지식(Dead Knowledge)을 보존하기 위해 살아있는 다음 세대의 예배 공간을 희생시키는 것은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전형적인 '주객전도'였다. 이에 연구자는 3.3톤의 폐기를 단행하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의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본질(기도하는 집)을 회복시켰던 '성전 정화(Cleansing of the Temple)' 사건을 목회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채찍을 드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 행위 뒤에 따를 기득권층의 반발과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결말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감내하셨던 '비장한 용기'이자 '거룩한 결단'이었다. 연구자 또한 '멀쩡한 도서관을 없앤다'는 비난이나 오해의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이 뒹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목회적 본질임을 확신하며 이 거룩한 개혁을 실행에 옮겼다.

2) 5인의 청년들과 함께한 세대의 연대(Solidarity)

이 개혁의 과정이 더욱 뜻깊었던 것은, 그 무거운 짐을 연구자 홀로 감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3.3톤의 책과 집기를 들어내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영적 침체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5명의 청년들(승일, 지운, 지인, 민기, 하은)이 함께했다. 이들은 모두 부천교회 교회학교에서 나고 자란, 이 공간의 역사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부천교회의 자녀들'이었다. 어느덧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한 이들이 자신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공간을, 이제는 자라나는 동생들을 위해 비워내고 닦아내는 일에 동참한 것이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무거운 책장을 나르며 흘린 이들의 땀방울은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 보내겠다"는 무언의 고백이자, 연구자가 품었던 '거룩한 분노'에 동참하는 '거룩한 연대'였다. 당시 함께 땀 흘렸던 이 5명의 청년은 현재 청년부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죽은 지식을 들어낸 자리에 청년들의 헌신이 심어졌고, 그 더 위에 이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영적 선순환의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b. 유비쿼터스형 온돌 예배실: '교실(Classroom)'에서 '오이코스(Oikos)'로

3.3톤이 비워진 자리는 기존의 학교형 교육 공간과는 전혀 다른 문법으로 채워졌다. 연구자는 이곳에 책상과 걸상을 다시 들여놓는 대신,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 자유롭게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온돌형 마루'를 시공하였다.

기존의 책상과 의자가 배치된 구조는 필연적으로 '가르치는 자(Teacher)'와 '배우는 자(Student)'를 구분 짓고, 일방적인 지식 전달(Teaching)을 강요하는 '교실(Classroom)'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비매체적 스토리텔링과 하브루타는 수직적 교육이 아닌 수평적 소통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공간을 초대교회의 가정 교회, 즉 '오이코스(Oikos)'와 같은 따뜻하고 안전한 관계의 장으로 변모 시키고자 했다.

새롭게 조성된 예배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심리적 장벽의 제거를 통한 친밀감(Intimacy)의 형성이다. 딱딱한 의자가 사라지고 따뜻한 바닥에 둥글게 모여 앉음으로써, 아이들은 교사나 설교자를

'권위적인 강사'가 아닌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근한 어른'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김영래 교수가 강조한 '관계(Relationship)' 중심 교육이 가능해지는 물리적 토대가 되었다.

둘째, 시선의 확보를 통한 눈맞춤(Eye-contact)의 가능성이다. 시야를 가리는 책장과 책상이 사라진 탁 트인 공간에서, 설교자는 모든 아이들과 눈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화려한 미디어 화면이 사라진 벽면은 오직 설교자의 표정과 제스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룩한 여백'이 되었다.

셋째, 가정과의 연결성(Connectivity)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온돌 구조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아닌 '집(Home)'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는 교회에서의 경험이 이질적인 학습 활동이 아니라, 가정의 거실이나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하는 환경적 장치이다.

결국, 3.3톤의 폐기와 온돌 시공은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영적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를 뚫은 것이며, 이어지는 절에서 논의할 '통합 교육 커리큘럼(소프트웨어)'이 막힘 없이 흐를 수 있는 최적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것이었다.

분석 및 제언: 공간의 신학적 의미

이러한 공간의 재구성은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선 신학적 결단이었다. 기존의 도서관이 지식을 축적하는 '보관(Archive)'의 공간이었다면, 온돌 마루는 관계가 발생하는 '거주(Dwelling)'의 공간을 지향한다. 신발을 벗고 마주 앉는 구조적 변화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위계를 허물고, 하브루타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토대가 되었다. 특히 본 사례가 시사하는 적용의 핵심은 '온돌'이라는 특정 형태가 아니라, '눈맞춤'과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타 교회 적용 시에는 상황에 따라 원형 탁자나 소그룹실 배치를 활용하여 이 '소통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스템의 전환: 원포인트(One-Point)(One-Point) 통합 교육과정의 설계

a. 세대 간 단절을 넘어서: '영적 바벨탑' 무너뜨리기

물리적 공간의 혁명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터'를 닦은 것이라면, 시스템의 혁명은 그 터 위에서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연령별로 각기 다른 본문과 공과를 사용하는 '파편화된 커리큘럼'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같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다녀왔음에도, 부모는 대예배에서 '로마서의 이신칭의'를 듣고, 자녀는 교회학교에서 '노아의 방주'를 배우는 현상이 발생한다. 서로 다른 텍스트를 입력 받은 부모와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적인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서로의 영적 언어가 통하지 않는 '가정 내 영적 바벨탑'이 쌓이는 것이다. 공유된 경험(Shared Experience)이 없기에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기에 신앙의 전수는 어려워진다. 이에 연구자는 가정을 '영적 이산가족'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와 가정을 하나의 말씀으로 잇기 위해 전 세대가 동일한 성경 본문을 공유하는 '원포인트(One-Point)(One-Point) 통합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b. 원포인트(One-Point)(One-Point) 전략: 텍스트의 공유와 언어의 번역

이 과정의 핵심은 획일화가 아닌 '번역'과 '상황화'에 있다. 단순히 어른

예배의 설교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아이들의 수준에 어른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What)' 전할 것인가는 통일하되, '어떻게(How)' 전할 것인가는 철저히 차별화하는 전략이다.

텍스트의 공유(One Text): 영·유아·유치부부터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매주 동일한 성경 본문(예: 여호수아 6장)을 채택한다. 이는 온 가족이 같은 영적 양식을 섭취함으로써, 가정 내 하브루타를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언어의 번역(Translation of Language): 장년부의 경우, 본문의 신학적 의미와 삶의 적용을 논리적 언어와 명제적 설교로 선포한다. 아동부의 경우, 동일한 본문을 연구자가 강조하는 '비매체적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아이들의 언어와 상상력으로 번역하여 전달한다. 예컨대 '두려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극으로 변환하여 체감하게 한다. 영·유아·유치부의 경우, 핵심 키워드를 반복하고 구어체와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메시지를 각인 시킨다.

c. 하브루타를 위한 선행 조건: 식탁 위의 공통 분모 확보

결국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서의 '선포(Kerygma)'가 가정에서의 '대화(Havruta)'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다. 원포인트(One-Point) 설교는 하브루타를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Priming Water)이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라고 막연하게 묻고 "몰라, 기억 안 나"라는 단답을 듣는 무기력한 대화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 자신이 들은 말씀이 곧 자녀가 들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빠도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무서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도권(Initiative)을 갖게 된다. 즉, 3.3톤의 폐기와 온돌 시공이 하브루타를 위한 '공간적 토대'라면, 원포인트(One-Point) 통합 커리큘럼은 하브루타를 위한 '재료적 토대'이다.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시스템적 기반 위에서 실제로 진행된 첫 번째 적용 사례, '여호수아 6장'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설교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적용사례 1: 도입기(교회) - 여호수아 6장, 침묵의 행진과 함성

1. 원포인트(One-Point) 메시지: 무너짐이 아닌 동행의 기적

a. 본문 선정의 배경: 성취 강박과 디지털 소음 속에서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발견

본 연구가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의 첫 번째 적용 사례(도입기)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성 정복' 사건을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현대 사회, 특히 교회의 허리인 3040 부모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시대적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임마누엘(Immanuel,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극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3040세대는 '성과주의(Meritocracy)'가 지배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가시적인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신앙을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여리고 성의 함락과 같은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왜곡된 도식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본문을 재해석하여, 성과에 지친 3040세대에게 신앙의 본질은 무너뜨리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심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즉, 이 본문은 성취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동행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영적 안식을 제공하는 최적의 텍스트이다.

한편,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인 다음 세대는 슛폼 콘텐츠와 끊임없는 알림(Notification)이 주는 도파민 루프에 갇혀, 잠시도 멈추지 못하는 ‘공백 공포(Horror Vacui)’를 겪고 있다. 이들에게 0.1초의 정적은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이자 불안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무호흡의 시대’에 여호수아 6장의 ‘침묵 명령’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억압이 아니라, 소음 속에 묻혀 있던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는 ‘거룩한 주파수 맞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침묵을 통해 다음 세대가 디지털 기기가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여리고 성 사건을 적을 무찌르는 전쟁 서사가 아닌, 성취 강박과 디지털 소음에 갇힌 현대인 가정이 ‘함께 걷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의 서사’로 재정의하여 원포인트(One-Point) 메시지를 설계하였다.

b. 메시지의 재해석: 하이라이트의 전복(Reversal)과 동행의 신학

일반적인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여호수아 6장의 클라이맥스는 20절, 즉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적인 사건(Event)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장년부 설교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를 통해, 진정한 신앙의 정점(Highlight)은 결과가 나타나는 도파민적 순간이 아니라, 침묵 속에 묵묵히

걷는 '함께함의 과정' 그 자체임을 역설하며 기존의 결과 중심적 통념을 전복시켰다.

성서 신학적으로 볼 때, 여리고 성벽이 붕괴되는 장면은 성경 전체 27절 중 단 한 절에 불과하다. 반면, 텍스트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구체적인 행동 지침, 즉 '침묵의 행진'에 할애되어 있다(수 6:3-10). 하나님은 왜 굳이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긴 시간 동안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수 6:10)고 명령하셨을까?

히브리어로 침묵을 뜻하는 '하샤(hashah)'는 단순한 소음의 제거를 넘어,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바라는 영적 집중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합리적 계산과 불안에서 기인한 '언제 무너질까?'라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행위이자, 나의 소리를 줄임으로써 이미 대열 속에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청중(Listening)'의 예배적 행위이다.

연구자는 이 지점에서 교육의 핵심 메시지를 도출하였다. 즉, 성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순간(Kairos)'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침묵의 시간(Chronos)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감각하는 '동행의 여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결과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성취(Achievement)'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Walking with God)'에 있음을 일깨우는 결정적인 신학적 전환점이 된다.

c. 교육적 목표: 텍스트의 공유와 해석의 번역(Translation)

이러한 신학적 메시지는 '원포인트(One-Point) 통합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세대별로 각기 다른 언어와 방식으로 번역(Translation)되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는 동일하다. 그것은 학습자(성도)를 관객석에 앉은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말씀의 서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초대하는 것이다.

장년부 설교에서는 논리적인 언어와 실존적인 예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지성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는 성인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다. 반면, 추상적 사고보다 감각적 경험이 중요한 아동부와 영·유아·유치부에게는 이 메시지를 교리로 설명하는 대신, '비매체적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연구자는 시각적 자극(영상)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청각적 심상(발자국 소리, 호흡)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답답한 침묵'을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시간'으로 재정의하도록 유도한다.

결론적으로 도입기의 원포인트(One-Point) 메시지 전략은 온 가족이 "우리 가정의 여리고(문제) 앞에서, 내가 소리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잠잠히 견뎌다"는 '공유된 영적 태도(Shared Spiritual Attitude)'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부모와 자녀가 각기 다른 예배 처소에 있었지만 동일한 '침묵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어지는 가정 내 하브루타(심화기)에서 세대 간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깊은 영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Cornerstone)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2. 비매체적 스토리텔링: 시각자극의 소거를 통한 하나님의 현존(Presence)
감각화

a. '결핍'의 연출: 영상의 부재(Absence)가 만들어낸 거룩한 여백

오늘날 교회학교 예배 현장은 아이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한 ‘미디어의 전쟁터’와 같다. 화려한 자막, 빠른 화면 전환, 자극적인 사운드는 아이들의 눈과 귀를 점령하지만, 역설적으로 스스로 이미지를 그려내는 ‘상상력의 근육’을 퇴화시킨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여호수아 6장 설교가 선포되는 동안, 예배실의 모든 LED 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끄고 강단의 핀 조명(Pin spotlight) 하나만을 남기는 과감한 ‘시각적 소거’를 단행하였다. 이는 김영래 교수가 강조한 ‘상상력이 깃드는 창조적 여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었다.¹⁰¹ 아이들의 눈앞에서 스펙터클하게 무너지는 여리고 성의 CG(컴퓨터 그래픽) 영상이 사라지자, 예배실에는 낮은 정적과 어둠이 찾아왔다. 바로 그 ‘결핍’의 순간, 아이들의 감각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각적 소비(Visual Consumption)’ 모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내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청각적 몰입(Auditory Immersion)’ 모드로 급격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b. 현장 묘사: 군화 소리와 땀 냄새의 공감각적 전이

연구자는 이 고요한 적막을 선부른 말로 채우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손에 쥐고 강단을 천천히 걷는 ‘비언어적 행위(Non-verbal Action)’로 설교를 시작했다. 이때 연구자는 과거 20대 시절,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하며 겪었던 극한의 신체적 고통과 침묵의 경험을 스토리텔링의 핵심 질료로 소환하였다.

¹⁰¹ 김영래,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442.

연구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잘 정돈된 설교 언어가 아닌, 거친 호흡과 감각적인 묘사였다.

"애들아, 눈을 감고 귀만 열어 봐. (10초간 침묵 후, 마이크에 거친 숨소리를 불어넣으며 저벅, 저벅 발을 구른다) ...들리니? 이걸 목사님이 군인이었을 때, 가장 무더운 한 여름에 유격훈련을 갔다가 부대로 돌아올 때 들었던 소리야. 등에는 20kg이 넘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3kg의 총을 들고, 머리에는 무거운 헬멧과, 딱딱한 전투화를 신고, 긴바지를 입고, 끝도 없는 길을 걷고 있었어. 발을 내 디딜 때마다 딱딱한 전투화 밑에서는 모래알이 ‘사각, 사각, 으드득’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앞에 옆에 뒤에서 같이 걷고 있는 전우의 숨소리가 목사님의 귓가에 ‘후우, 후우’ 하고 거칠게 들려와. 심지어, (고조시킨다)이마에는 땀이 비 오듯이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 소금기 때문에 눈이 너무 따가워. 앞이 보이지 않고, 온몸에서는 시큼한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라곤 모래 밟는 소리와 옆사람의 숨소리 뿐이야, 더 이상 걷기가 힘들어져 그래서일까? 너무 힘들어서 ‘아, 다리 아파!’, ‘그만 좀 걷자!’ 라고 소리치고 싶어. 목구멍까지 불평이 차올라. 그런데...(잠시 멈춤, 5초간 침묵, 숨소리도 내지 않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고 이동하는 훈련이었거든,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오백 명정도의 군인들이 아무말 없이 모래밟는소리 숨소리만 내면서 이동을 하는 거야. (천천히 느리게 집중되는 톤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어 대장님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여리고성을 견도록 해라, 하루 한바퀴 씩, 마지막날은 일곱바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 했어. ‘입을 다물라! 쏫!’ 지금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걷기만 한다. 힘들어도 피로워도 무서워도 의심스러워도 조용히 걷는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공감각적 묘사(Synesthetic Description)’는 즉각적인 교육적 효과를 발휘했다. 연구자가 땀 냄새와 모래 밟는 소리를 묘사할 때,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코를 찡긋거리거나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설교자의 인격과 기억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될 때, 청중이 텍스트의 현장에 ‘참여(Participation)’ 하게 된다는 ‘성육신적 커뮤니케이션’의 실제적 증거가 되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에어컨이 나오는 쾌적한 예배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3천 년 전 뜨거운 태양 아래 여리고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3. 세대별 설교의 번역: 침묵과 경청의 언어

‘원포인트(One-Point) 통합 교육과정’의 성패는 동일한 텍스트를 각 세대의 삶의 정황(Context)에 맞게 얼마나 적절하게 ‘번역(Translation)’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 연구는 여호수아 6장의 ‘침묵 명령’을 장년부, 아동부, 영·유아·유치부의 발달 단계에 맞춰 재구성하였다.

주요 번역 전략은 표 6-1과 같다.

<표 6-1> 세대별 여호수아 6장 설교 구성 및 언어 변환 비교

구분	장년부	아동부	영·유아·유치부
핵심 키워드	임재의 자각	청각적 상상	신체적 모방
접근전략	실존적 자각과 관계적 신뢰	공감각적 심상화 (군대 경험)	의성어/의태어 활용 및 놀이화
설교제목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췌! 들어봐!	영금영금? 아니, 뚜벅뚜벅!
핵심기제	시선의 전환	감각전이	행동강화

메시지 변환	기적과 이적은	포기하고 싶은	입에는 ‘꼭’
	조용히, 꾸준히	마음과	지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불평을 참으면	발은 ‘사뿐사뿐’
	지금	하나님의 발소리가	고양이!
	이 순간입니다.	들려!	나팔 불면 ‘와’ !

a. 장년부: 계산을 멈추고 임재를 켜는 영적 안식

장년부 설교에서의 ‘침묵’은 맹목적인 ‘판단 중지’가 아니라, 불안을 야기하는 ‘세속적 계산의 중단’으로 선포되었다. 3040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은 언제 주어질까?"라는 성과 중심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간다. 연구자는 이 소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함을 지적하며, 여리고 앞에서의 침묵은 내가 계산하는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발자국)를 켜기 시작하는 ‘관점의 전환’임을 역설하였다. 이는 성도들에게 억지로 말을 참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지금 함께 걷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존재론적 안식으로의 초청이었다.

b. 아동부: 보이지 않는 대장님을 찾는 숨바꼭질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초등부 아동들에게 침묵은 '말 안 하기(금지)'가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 찾기(탐색)'라는 능동적 미션으로

번역되었다. 연구자는 군대 행군의 경험을 예로 들며, "우리가 떠들면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신 대장님의 발소리를 놓치게 돼"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이들에게 침묵을 답답한 억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로 찾아내는 ‘거룩한 숨바꼭질’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즉, 아이들은 억지로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소리(하나님의 임재)를 듣기 위해 스스로 세상의 소리를 끄는(Mute)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c. 영·유아·유치부: 감각적 의성어와 신체적 모방

언어적 이해보다 감각적 반응이 우선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침묵’은 하나의 즐거운 ‘놀이(Play)’로 번역되었다. 연구자는 “침묵하세요”라는 명령형 언어 대신, “입술에 예쁜 자물쇠를 찰칵!”, “발걸음은 사뿐사뿐, 도둑고양이처럼!”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모방 본능을 자극했다. 아이들은 설교자의 제스처를 따라 입을 막고, 발을 구르며 온몸으로 말씀을 ‘수행(Performance)’하였다. 특히 마지막에 나팔 소리(“뿌우우~”)와 함께 합성을 지르는 활동은, 억눌렀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순종 뒤에 오는 기쁨’을 신체적으로 각인(Imprinting)시키는 결정적인 교육적 순간이 되었다.

4. 현장의 반응: 수동적 관람자에서 능동적 청취자로

a. 아동부: 소란(Noise)이 경청(Listening)으로 바뀌는 기적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이 가져온 가장 극적인 변화는 예배실의

공기(Atmosphere) 그 자체였다. 평소 설교 시작 5분이 지나면 몸을 비틀거나 잡담을 나누는 아이들로 인해 산만했던 예배실이, 연구자가 마이크에 거친 숨소리를 불어넣으며 침묵 보행을 시작하자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이는 화려한 영상이 사라진 ‘결핍’의 공간을 아이들의 ‘상상력’이 채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다.

특히,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인 아동들의 변화는 현장에 있던 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평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겨워 하던 아이들이, 강단 위를 걷는 설교자의 발소리에 맞춰 숨을 죽이고 몰입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교사의 증언과 목회 일지는 그날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거한다.

"설교 중 ‘전투화 소리’를 묘사하며 10초간 침묵하며 걸을 때,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초등학교 3학년 민준(가명)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막는 모습을 보았다. ADHD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로 가장 산만한 아이였기에 더욱 놀라웠다. 예배 후 공과 시간에 민준이는 교사에게 ‘목사님이 걸으실 때 진짜 군인들이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입을 막고 같이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라고 고백했다."(목회 일지 #24, 2025. 6. 15)

이러한 반응은 김영래 교수가 언급한 대로,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중을 이야기 속으로 초청하여 그 사건을 ‘현재화(Present)’하는 성례전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입증한다. 아이들은 여호수아 6장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행렬의 일원이 되어 함께 걷고 있었던 것이다.

b. 영·유아·유치부: 놀이가 된 순종

언어적 이해력보다 감각적 반응이 우선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침묵'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자칫 지루함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입술에 예쁜 자물쇠를 찰칵!", "발걸음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설교를 '신체 놀이(Physical Play)'로 번역하자, 현장에서는 놀라운 몰입 현상이 일어났다.

예배를 참관했던 영·유아·유치부 부장 교사는 평소 통제가 어렵던 4~5세 아이들이 보여준 의외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목회 일지에 기록하였다.

"평소라면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장난감을 찾던 아이들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끄고 발소리를 죽이자 일제히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고, 의자 밑으로 내려와 까치발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듯 진지했다. 아이들에게 침묵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놀이'였다."(교사 관찰 일지, 2025. 6. 15)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거룩한 놀이'가 예배당을 넘어 아이들의 일상 공간으로 즉각 전이(Transfer)되었다는 점이다. 예배 직후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설교의 메시지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아이들의 생활 영성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한 5세 학부모(34세, 여)는 그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제가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탄 아이가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엄마, 아빠 췌! 조용히 해야 하나님 발소리가 들려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창밖을 보며 진지하게 침묵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부부도 함께 조용히 운전하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말씀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학부모 피드백 문자 재구성)

이러한 사례들은 영·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 '순종'이 강요된 규율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몸으로 익힌 침묵을 통해, 가정이라는 또 다른 여리고 성에서 부모를 영적 침묵으로 이끄는 작은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c. 장년부: 문제 해결(Result)을 넘어선 동행의 평안(Process)

장년부 예배에서의 반응 또한 목격했다. 10초간의 침묵이 흐르는 동안, 수백 명의 성도가 모인 본당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룩한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설교 후 진행된 심방에서 다수의 3040 성도들은 이번 설교가 문제 해결에만 매달렸던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남편의 이직 문제로 오랜 기간 기도해오던 한 집사(38세, 여)의 고백은, 원포인트(One-Point) 메시지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닌 내면의 깊은 치유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남편의 이직 문제라는 우리 가정의 '여리고 성' 앞에서 저는 늘 불안해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어요. '왜 빨리 안 무너뜨려 주시냐' 고요. 그런데 오늘 침묵하며 걷는 말씀을 듣는데... 여리고 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도, 지금 이 힘든 광야 길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과가 아니라 동행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심층 심방 기록, 2025. 6. 18)

이처럼 K집사의 고백은 성벽(문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성벽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핍'에서 '동행'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본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가 단순한 가정 내 대화의 회복을 넘어, 가정의 신앙관을 '성공 지향'에서

'임마누엘 지향'으로 체질 개선하는 데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분석 및 제언: 비매체성과 시행착오

이 과정의 핵심은 화려한 미디어를 제거하고 원초적인 소리와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감각하게 하는 '비매체성(Non-media)'에 있다. 물론 초기에는 시각적 자극에 익숙한 아이들이 침묵을 지루해 하거나 낮설어하는 '문화적 충돌'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러나 이 지루함의 시간을 견뎌내자, 아이들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자신의 내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몰입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모델이 제시하는 적용의 핵심은 설교의 기법이 아니라, 디지털 소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할 수 있는 영적 여백'을 예배 속에 확보하는 데 있다.

C. 적용사례 2: 심화기(집) - 식탁 위에서 확인하는 동행의 기적

1. 심화의 방향: 감각된 임재에서 고백 된 동행으로

교회(도입기)에서의 시간이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끼는 '감각의 시간' 이었다면, 가정(심화기)에서의 시간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시인하는 '고백의 시간' 이다. 김영래 교수가 지적했듯, 한국교회의 가정 신앙교육이 정착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부모가 가정에서조차 또 하나의 설교자가 되어 자녀에게 성경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했기 때문이다.¹⁰² 그러나 본 프로젝트의 식탁 하브루타는 가르침이 아닌 ‘확인’에 방점을 둔다. 부모와 자녀는 “침묵 속에 걷는 동안, 당신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각자의 외로운 싸움터(학교, 직장)가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던 ‘동행의 현장’임을 서로에게 증언한다. 즉, 교회에서의 침묵 훈련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라, 가정의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걷는 하나님(God with us)’을 풍성하게 이야기하기 위한 거룩한 밑거름이었다.

2. 식탁 하브루타의 실제: 우리 가정의 여리고 찾기

‘동행의 신학’을 3040 가정의 식탁에 착근 시키기 위해 교회는 예배 직후 [가정용 하브루타 활동지: 동행의 식탁]을 배포한다<그림6-3>. 이 질문지는 침묵의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설계된 영적 탐지기이다.

¹⁰²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16.

<그림6-3. 가정용 하브루타 활동지 예시: 동행의 식탁>



동행의 식탁

250615

오늘의 말씀

수 6:1-27

순서

1. 사랑의 인사
2. 말씀읽기
3. 말씀요약
4. 나눔
5. 마무리기도

오늘의 찬양

찬 430장

질문

1.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까요?

[Guide: 아이들이 말씀시간에 들은 내용을 상기하게 해주세요]

2. 하나님은 왜 성벽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셨을까요?

[Guide: 하나님은 문제해결보다 함께 걷는 시간을 더 좋아하신다고 해주세요]

3. 지금 우리가족에게 남아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Guide: 가족 간에 기도제목을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Step 1. 포착(Detection) - 내 옆의 발자국 소리

"아까 목사님이 마이크를 끄고 걸으실 때, 혼자 걷는 것 같았니, 누군가와 같이 걷는 것 같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들 마음속엔 누가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Step 2. 심화(Interpretation) - 무너짐보다 중요한 '함께함'

"하나님은 왜 성벽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7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같이 걷기만 하셨을까?", (부모 가이드: 하나님은 '문제 해결(성벽 붕괴)'보다 우리와 '함께 걷는 시간'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Step 3. 적용(Translation) - 나의 동행자 찾기

"지금 우리 가족에게 '아직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 성(힘든 일)'은 무엇일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걷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니?"

3. 부모의 역할 변화: 양육자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다음은 부천교회 3040 교구에 속한 K집사(42세, 남) 가정의 식탁 대화이다. 성과 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던 아버지가 설교를 통해 '동행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자녀와 나누며 가정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장면이다.

[상황 묘사] 저녁 식탁. 아빠는 주일 낮 예배의 감흥이 남은 듯, 아들 민준이에게 활동지를 내밀며 대화를 시도한다. 침묵에 대한 이야기는 수단일 뿐, 대화의 핵심은 곧바로 '하나님'으로 이어진다.

부(父): "민준아, 아까 예배 때 목사님이 아무 말없이 걸으실 때... 아빠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뚜벅뚜벅 같이 걷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더라."

자(子, 초4): "나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꼭 내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았어. 좀 든든한 느낌?"

부: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사실 아빠는 요즘 회사가 여리고 성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벽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빨리 무너뜨려 달라고 떼쓰고 싶을 때가 많거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했고."

자:(걱정스런 눈빛) "아빠도 무서워? 아빠는 다 이기잖아."

부: "아니야, 아빠도 외로울 때가 있어. 그런데 오늘 알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벽이 무너지는 대박'이 아니라, 아빠가 힘들 때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성벽이 안 무너져도, 하나님이 같이 걷고 계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자:(눈을 반짝이며) "그럼... 나 지난번에 수학 시험 망쳐서 터덜터덜 걸어올 때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걷고 계셨던 거야? 100점 맞을 때만 계신 게 아니고?"

부:(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그렇지! 바로 그거야. 민준이가 100점 맞아서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계시지만, 문제 틀려서 속상해하며 걸어올 때도 하나님은 민준이 손을 놓지 않고 같이 걷고 계셔. 진짜 기적은 100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준이랑 같이 걷고 있다는 사실이야."

자: "그럼 괜찮네. 나 혼자 걷는 거 아니니까."

[분석] 이 대화에서 K집사 가정의 중심축은 '성취(Achievement)'에서 '동행(Accompaniment)'으로 완전히 이동했다. 첫째, 고난의 재해석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과정)이 하나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로 재정의되었다. 둘째, 존재론적 자존감의 회복이다. 자녀는 "시험을 망친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걷고 계셨다"는 통찰을 얻었다. 이는 자녀에게 성적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하브루타의 열매다.

4. 변화의 관찰: 대화의 회복과 영적 연대감 형성

이 과정을 통해 가정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연습하는 훈련소로 변모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율법적 메시지 대신, "실패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걸으신다"는 복음적 메시지를 전수하는 제사장으로 선다. 본 연구의 관찰 결과, 식탁 하브루타가 정착된 가정에서는 "공부해라(성벽을 무너뜨려라)"는 독촉 대신, "오늘도 하나님과 잘 걸었니?(동행했니?)"라는 질문이 일상 언어로 자리 잡았다. 이는 침묵이라는 수단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 즉 '임마누엘 신앙의 생활화'가 가정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및 제언: 부모의 역할 변화와 한계 극복

식탁 하브루타를 통해 부모는 신앙을 점검하는 '관리자'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동반자'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취약성을 고백할 때 자녀와의 영적 유대감이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매주 이러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3040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프로젝트 중반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의 핵심은 교회는 부모에게 '가르칠 의무'를 지우지 말고, '함께 질문할 수 있는 도구(질문지)'를 제공하여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완벽한 교육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지속적인 '나눔(Sharing)'의 장을 여는 것이 본 모델의 본질이다.

VII.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의 적용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부천교회 교육 현장에서 실행된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Family-Connected Christian Education)’ 모델의 실제적인 적용 결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단순히 수치적인 성장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작동한 교육적 메커니즘과 신학적 함의를 규명하려고 한다. 분석의 틀은 교회학교의 구조적 변화를 다루는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 과, 참여자들의 내면과 관계의 질적 변화를 추적하는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 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본 모델이 3040 부모세대의 ‘영적 번아웃’ 을 치유하는 과정과 각 연령별(영유아, 아동, 장년)로 경험된 신학적 유익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여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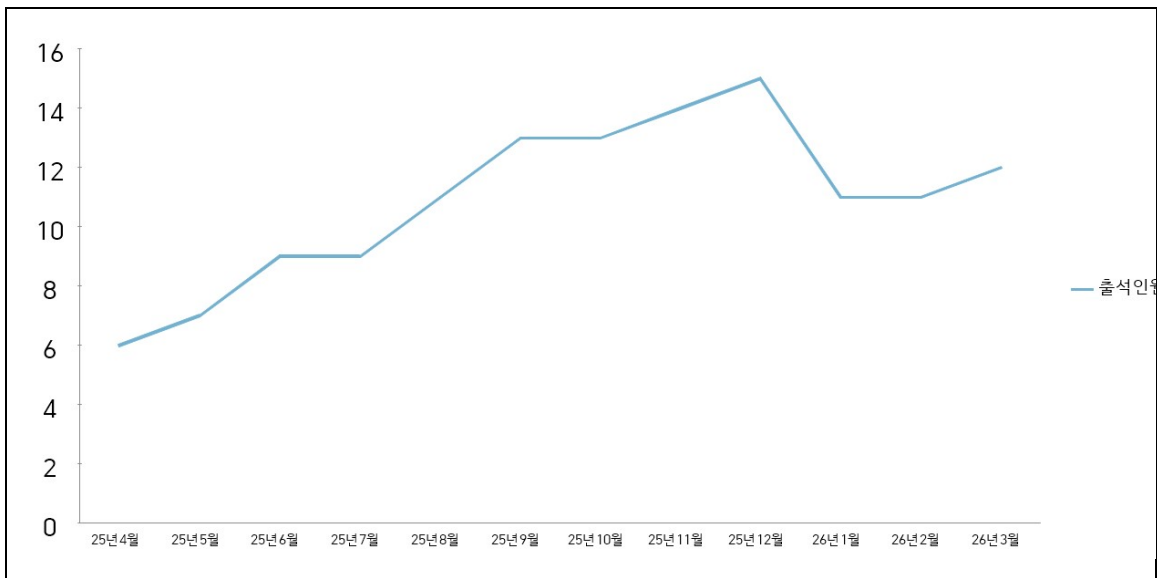
A. 정량적 분석: 멈춰선 성장에서 회복의 수치로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은 교회학교의 축소와 부서 통폐합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적용된 부천교회의 사례는 이러한 하향 곡선을 반등시키는 유의미한 수치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의 분석은 2025년 3월 프로젝트 시작 시점부터 12월까지의 출석 추이를 시각화한 것이다.

1. 아동부 재적 및 출석의 획기적 증가

연구자가 부임하여 ‘비매체적 스토리텔링’ 예배를 도입한 2025년 3월, 아동부의 실제 출석 인원은 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림 7-1>에서 나타나듯,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출석 그래프는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평균 출석 인원은 15명으로, 시작 시점 대비 약 250%의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림 7-1. 아동부 재적 및 출석 성장 추이(2025.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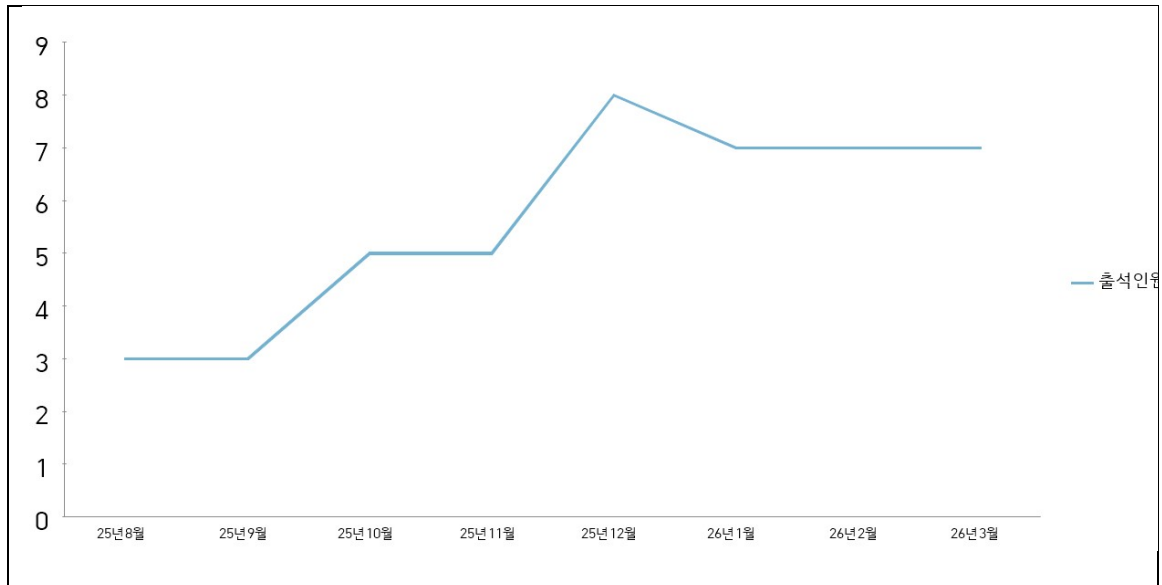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가파른 상승세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부모들의 신뢰 회복이다. 가정 연계 활동(식탁 하브루타)을 통해 변화를 체감한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신호이다. 둘째, 아이들의 자발적 변화이다. 심층 인터뷰 결과, "아이가 교회 이야기를 재미있어 해서 스스로 가자고 한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화려한 미디어가 없는 예배라 할지라도, 이야기(Story) 자체가 가진 흡입력이 아이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켰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이다.

2. 영·유아·유치부의 신설과 부서분화

아동부의 성장은 부서의 세분화를 견인하는 구조적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림 7-2>는 미취학 아동의 증가에 따라 2025년 8월 단행된 ‘영·유아·유치부 분립’ 전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7-2 영·유아·유치부 재적 및 출석 성장 추이(2025.08-12)>



기존에는 인원 부족으로 통합 운영되던 기형적 구조였으나, 8월 첫 주 3명으로 시작된 독립 부서는 12월 기준 재적 8명의 안정적인 부서로 성장하였다. 그래프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식탁 하브루타’가 언어가 미숙한 영유아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을 매개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본 교육 모델이 침체된 교회학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했음을 수치로 증명한다.

B. 정성적 분석 1: 3040 부모세대의 ‘가정 제사장직’ 회복과 영적치유

본 연구의 서론에서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통계를 통해 확인했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뼈아픈 현실은 3040 부모세대가 가중된 삶의 무게로 인해 심각한 ‘영적 번아웃’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하브루타 모델은 이 번아웃을 가속화하는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감’을 해체하는 데서 출발했다. 부모가 정답을 제시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고뇌를 솔직하게 나누는 영적 동반자(Sharing Partner)로 역할을 재정립했을 때, 신앙교육의 부담감은 사라지고 가정이 오히려 부모의 영적 회복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됨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모델이 부모를 '목회적 동반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심층적인 내면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역할의 존재론적 전환: 기능적 가르침(Teaching)에서 관계적 나눔(Sharing)으로

기존의 가정 신앙교육이 실패한 주원인은 부모에게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당위를 앞세워 과도한 ‘교사’의 역할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신학적 훈련이 부재하고 치열한 생업 현장에서 소진된 3040세대에게,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감은 또 하나의 무거운 ‘종교적 노동’이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는 ‘가르치지 말고 물어보라’는 하브루타의 원리를 통해 이 프레임을 전복시켰다.

"당신의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 앞에서, 부모는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공동 탐구자(Co-inquirer)'로 그 위치가 재설정되었다. 이러한 역할의 전환은 부모들에게 "내가 완벽한 신앙의 모범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영적 자유함을 제공하였으며, 가정 예배를 '집'이 아닌 '섬'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2. 성육신적 양육(Incarnational Parenting): 취약성의 고백을 통한 치유

권위적인 부모가 아닌,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이 가정 내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앞서 언급된 K 집사(42세)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이 아닌, 직장에서 겪는 '실패'와 '두려움'을 식탁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역설적으로 자녀와의 영적 유대감은 강화되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Incarnation)'의 원리가 가정 교육에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를 통제자가 아닌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선배'로 존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위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상호 치유(Mutual Healing)'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생동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영유아(5세) 자녀를 둔 J성도(34세, 여) 가정의 식탁 하브루타 대화록이 있다.

엄마:(여리고 성 침묵 행진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 지호는 언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꼭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어?

자녀: 밤에 불 끄고 깜깜할 때 혼자 자는 거 무서워요. 그때 하나님이 내 손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그랬구나. 사실 엄마도 가끔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쳐. 우리 무서울 때마다 엄마랑 지호랑 같이 기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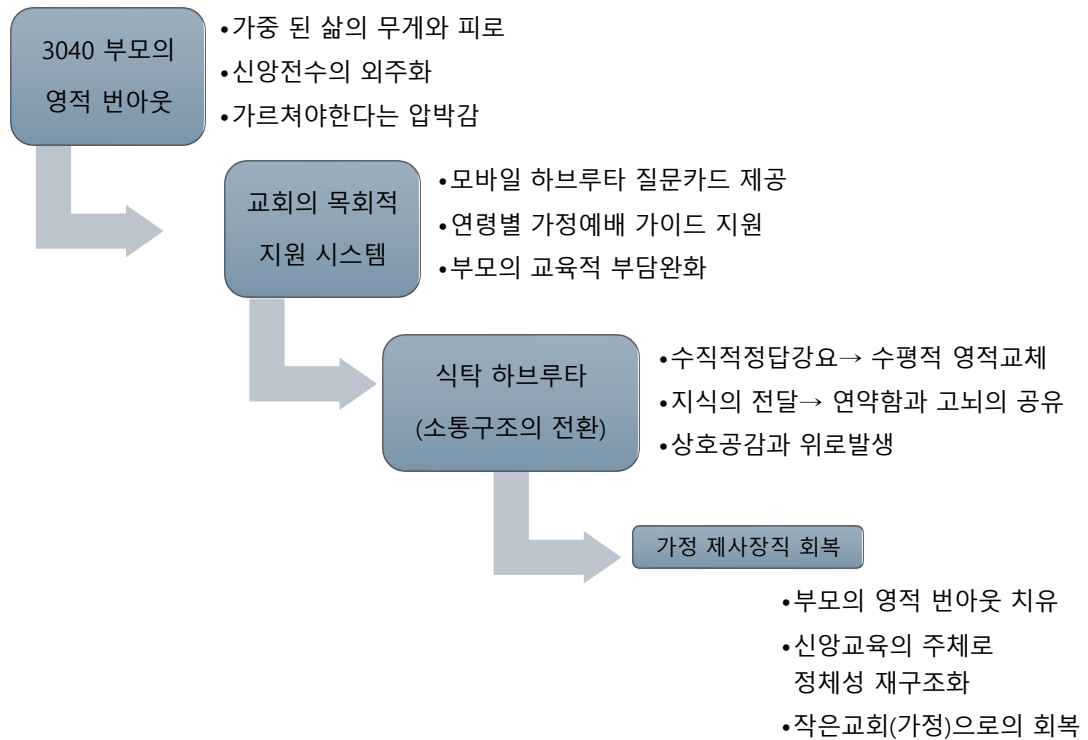
이 대화는 교리적인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J성도는 사후 피드백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예전에는 아이에게 성경 동화를 읽어주고 어떻게든 교훈을 짜내려다 보니 저도 아이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이와 나누면서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이는 하브루타가 단순한 교육 기법을 넘어, 가족 간의 영적 유대감을 묶는 강력한 실천신학적 도구임을 증명한다.

3. 가정의 교회됨(Ecclesiology of Home): 소비적 신앙에서 생산적 신앙으로

팬데믹 이전의 3040세대는 교회 시스템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수동적 객체였다. 그러나 매주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그들은 ‘영적 콘텐츠의 생산자’로 거듭났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고 중보하는 ‘미시적 교회(Micro-Church)’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멈추면 신앙도 멈추는 의존적 신앙인에서, 스스로 말씀의 떡을 떼는 자립적 신앙인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3040 부모세대가 ‘티칭’의 부담에서 벗어나 하브루타라는 도구를 통해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는 선순환 구조는 <그림 7-3>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7-3 3040부모세대의 영적치유 메커니즘(Teaching to Sharing)>



C. 정성적 분석 2: 3040 부모세대의 신학적 · 교육적 유익

본 연구의 핵심 방법론인 ‘원 포인트(One-Point) 스토리텔링’ 과 ‘하브루타’ 는 단일한 주제를 다루지만, 수용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의 신학적 · 교육적 유익을 산출하였다. 이는 본 모델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 모델임을 입증한다.

1. 영유아기(Infant & Toddler): 암묵적 지식과 ‘감각적 실재로서의 하나님’

a. 교육적 유익 (안전기지 형성)

언어적 이해가 불완전한 영유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분위기’이다. 미디어의 자극적인 소음이 소거된 예배 환경, 온돌방의 따뜻한 촉각, 그리고 부모의 육성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전기지(Secure Base)’를 제공했다. 이는 교회를 낫선 공간이 아닌 '엄마 품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b. 신학적 의미 (임재의 체득)

이들에게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실재(Felt Reality)’였다. 부모와 교사가 들려주는 따뜻한 스토리텔링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무의식(Unconscious) 중에 체득하게 된다. 이는 훗날 명시적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되는 '원초적 신뢰(Primal Trust)'를 형성한다.

2. 아동기(Children): 서사적 정체성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a. 교육적 유익(능동적 상상력):

완성된 영상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아이들은, 청각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머릿속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능동적 상상(Active Imagination)’을 훈련하였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은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의 성벽을 시각화하고, 이를 무너뜨리는 주체가 되는

경험을 했다.

b. 신학적 의미(서사의 융합)

성경의 인물들이 박제된 위인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존재로 다가왔다. 아이들은 성경의 이야기(Grand Narrative)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Little Narrative)를 대입하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재적 신앙을 형성하였다. 이는 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3. 장년기(Adults): 성찰적 실천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a. 교육적 유익(성찰적 사고)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3040세대는 '멈춤'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침묵의 행진’과 같은 과정 중심의 내러티브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면을 성찰하는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의 기회를 제공했다. 식탁 하브루타는 주일의 은혜를 평일의 삶으로 확장시키는 인지적 다리(Bridge) 역할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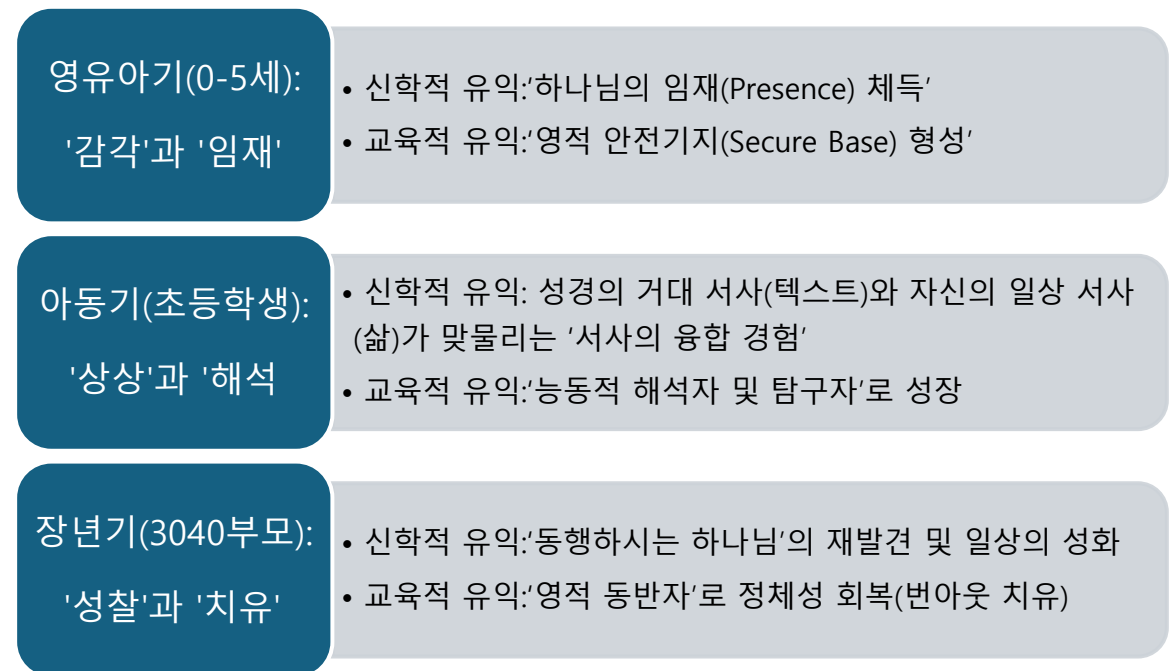
b. 신학적이미(일상의 성화)

그들은 신앙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Doing)’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Being)' 으로 재정의하게 되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은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침묵 속에 함께하셨다는 메시지는, 고달픈 육아와 직장 생활을 견디는 그들에게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을 재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신학적 위로가 되었다.

본 연구의 '원포인트(One-Point) 교육' 이라는 단일한 토대 위에서 각 세대가 공유한 신학적·교육적 유익을 경험하는 구조는 <그림 7-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7-4 세대별 가정 연계 교육의 신학적·교육적 유익 구조>



D. 평가 및 제언: 현실적 한계와 극복과제

본 연구의 적용 과정이 모든 면에서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부딪힌

현실적인 한계와 시행착오들은 향후 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한국교회들에 중요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1. 초기 저항: ‘침묵’ 과 ‘대화’ 의 낮 설음

프로젝트 초기, 영상 매체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시각적 자극이 없는 설교를 지루해 했고, 대화가 단절되었던 가정에서는 갑작스러운 하브루타 시도를 어색해 했다. 이는 단순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형성된 수동적 신앙 습관이 빚어낸 ‘문화적 충돌’ 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초기에 흥미를 유발하는 소품(Object)을 활용하거나, 식탁 질문을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심화 시키는 ‘단계적 접근(Step by Step)’ 전략을 사용해야 했다.

2. 지속가능성의 문제: 콘텐츠 공급 시스템의 필요성

매주 가정에서 양질의 하브루타 주제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프로젝트 중반, 질문 고갈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중단을 고민하는 가정들이 나타났다. 이는 개별 가정의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자는 매주 주일 설교와 연동된 ‘모바일 가정예배문’ 을 제작하여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목회적 콘텐츠 지원(Contents Support)’ 이 없이는 가정 연계 교육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위험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VIII. 결론

A. 결론과 제언: 연구의 요약 및 종합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붕괴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맥을 어떻게 다시 이을 것인가?"라는 절박한 목회적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팬데믹이 초래한 '공간의 상실'과 '가정의 고립'이 위기인 동시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Kairos)임을 전제하고, 부천교회 교육 현장에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여정과 핵심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제의 진단과 신학적 성찰이다. 연구자는 3040 부모세대의 '영적 번아웃'과 가정 내 '신앙 언어의 소실'을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구의 지식 중심적 교육(Schooling Model)이 아닌, 성서적 원형인 '히브리적 사고(Hebrew Thinking)'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이는 얇과 삶,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 신앙관을 기초로 한다.

둘째는 방법론의 혁신이다. 이는 곧 '비매체성'과 '하브루타'의 결합이다. 디지털 피로도(Digital Fatigue)가 극에 달한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직시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시각 매체를 소거하고 설교자의 육성과 침묵에 집중하는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이들의 영적 상상력을 깨웠다. 나아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정의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가 묻고 답하는 ‘하브루타’로 연결함으로써, 수동적 청취자였던 성도들을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시켰다.

셋째는 현장 적용과 구조적 개혁이다.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부천교회의 물리적 환경을 과감히 뜯어고쳤다. 10년간 방치된 3.3톤의 낡은 도서관 장서를 폐기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온돌형 예배실(Oikos)’을 구축하여 관계 중심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전 세대가 동일한 본문을 공유하는 ‘원포인트(One-Point)(One-Point) 통합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가정 내 세대 간 소통의 장벽을 허물었다.

넷째는 임상 결과의 증명이다. 이 모델을 적용한 지 9개월 만에 아동부 출석이 250% 성장하고 영·유아·유치부가 분립 개척되는 정량적 성과를 거두었다. 더 중요한 정성적 결실은 3040 부모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신앙을 나누는’ 동반자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한 모델이 침체된 한국교회학교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임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변화한 신앙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교회 중심 교육 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가정을 신앙 전수의 핵심 주체로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팬데믹은 교회의 물리적 공간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신앙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 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였으며, 가정은 이러한 공백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신앙 전수가 교회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특히 3040 부모세대의 영적 위기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직장과 가정의 이중 부담 속에서 신앙교육의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자녀 세대의 신앙 약화로 직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회 교육 구조 전반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신호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신앙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피터슨은 “성경은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는 책이다”¹⁰³라고 말하며, 말씀 교육의 본질이 형성(formatinal)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하우어워스는 “교회는 사회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윤리이다”¹⁰⁴라고 말하며, 공동체 자체가 교육의 장임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앙교육의 중심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이동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신앙 전수의 주체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의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 모델’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신앙 형성의 출발점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이며, 성경 역시 이야기 구조를 통해 계시가 전달된다. 따라서 신앙교육은 추상적 교리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비매체적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과잉 환경 속에서 상상력과 몰입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기능한다.

둘째, 하브루타(Havruta)는 신앙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이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며, 질문과 대화를 통해

¹⁰³ Eugene Peterson, *Eat This Book* (Grand Rapids: Eerdmans, 2006), 12.

¹⁰⁴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9.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브루타는 학습자를 수동적 청취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며, 신앙을 개인의 경험으로 연결시킨다.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브루타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신앙을 일상 속에서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가정 연결(Home Connection)은 신앙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요소이다. 교회에서 시작된 신앙 경험이 가정에서 반복되고 확장될 때, 신앙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로 자리 잡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식탁 하브루타’는 이러한 연결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천적 모델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즉, 스토리텔링이 신앙 경험을 제공하고, 하브루타가 이를 내면화 하며, 가정 연결이 이를 지속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하여, 부천교회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부 출석 증가, 부모 참여 확대, 가정 내 신앙 대화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 연계형 교육 모델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임을 보여준다.

신학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교회론과 교육론의 통합적 재구성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교회는 더 이상 특정 공간에 제한된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과 일상 속에서 확장되는 유기적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초대교회의 ‘오이코스(Oikos)’ 공동체와도 연결되는 개념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 방법론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교회 교육은 점점 더 시청각 자료와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오히려 비매체적 스토리텔링과 대면적 대화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이는 기술 중심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하며, 인간 중심 교육으로의 회복을 촉구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교회는 부모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자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예배와 교육은 가정과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중심 사역에서 관계 중심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후속 과제를 남긴다. 첫째, 다양한 교회 규모와 환경에서 본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신앙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 교육 방식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앙교육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지속될 수 없다. 교회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본질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가정’이 있으며, 그 방법은 ‘이야기와 질문’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가정 연계형 기독교교육 모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며,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 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B. 한국교회를 위한 제언

부천교회의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방송(Broadcasting)’을 멈추고 ‘현존(Presence)’으로 승부하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한 미디어와 경쟁하려 해서는 안 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줄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와 ‘공동체의 현존’이다. 교회는 투박하더라도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이 묻어나는 ‘비매체적(Non-mediated)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복음을 나르는 수단일 뿐, 복음 그 자체는 반드시 ‘성육신적 만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서의 ‘하드웨어’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하라는 것이다.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외치지만, 정작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은 낡은 책상과 의자로 채워진 ‘학교(Classroom)’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간은 그 자체로 신학적 메시지를 담는다.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통제 받는 곳이 아니라, 마음껏 뒹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주(Dwelling)’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간의 혁명 없이는 교육의 혁명도 불가능하다.

셋째, 부모를 ‘교사’가 아닌 ‘탐구자’로 세우라는 것이다. 가정 연계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3040 부모에게 감당할 수 없는 ‘교사의 명예’를 씌우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부모에게 정답을 가르치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 오히려 자녀와 함께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Question)’을 손에 쥐여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영적 취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 함께 답을 찾아갈 때, 가정은 진정한 의미의 ‘작은 교회(Ecclesiola-가정 내에 형성된 소교회)’로 회복될 것이다.

넷째, 가정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목회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정 연계 교육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교회의 시스템적 지원을 제안한다. 실제 부천교회 가정에서 하브루타를 지속할 때 부모들이 공통으로 호소한 현실적 장애물은 생업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과 ‘대화 주제의 고갈’이었다. 이를 개별 가정의 의지와 책임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는 부모들의 교육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주 주일 설교와 연동된 ‘모바일 하브루타 질문 카드’ 나 ‘연령별 가정 예배 가이드’ 를 스마트폰으로 정기 발송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목회적 콘텐츠 지원 시스템(Content Support System)’ 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C.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유의미한 목회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천교회라는 단일 개체 교회의 상황(Context)을 배경으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임상 결과이다. 따라서 도시 상가 교회나 농어촌 교회 등 다양한 목회 환경에서도 이 모델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범용성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 신앙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추적하는 장기 추적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현재의 모델은 연구자의 ‘스토리텔링 능력’ 과 ‘기획력’ 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 모델이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 교사나 부모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과 ‘교사 훈련 모듈’ 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본 연구는 주로 영유아 및 아동과 그 부모 세대(3040)에 집중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기 쉬운 ‘청소년 가정’ 과, 조부모가 양육의 주체가 되는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용 가능한 하브루타 변형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에필로그

3.3톤의 낚은 책들을 들어내던 날, 함께 땀 흘리던 청년들의 거친 숨소리 속에서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았다.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 원초적인 사랑과 이야기를 갈구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화려한 프로그램의 옷을 벗고, 투박하지만 진실한 ‘식탁’ 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끊어졌던 다음 세대의 맥박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할 것이다. 본 논문이 그 거룩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고문헌

국내단행본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번역단행본

카, 니콜라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최준영 역. 서울: 청림출판, 2011.

프레이리, 파울로. 『페다고지: 피억압자의 교육학』. 남경식 역. 서울: 그린비,

2011.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신학과 세계』 88(2016), 395-428.

_____. "기독교교육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창조적 고찰." 『신학과 세계』

54(2005), 362-383.

_____.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공감적 이야기 공유를 통한 신앙교육의

모색." 『신학과 세계』 78(2013), 435-463.

_____. "성경 시대 학습 방법과 기독교교육: 암기와 하브루타." 『신학과 세계』

101(2021), 279-308.

_____.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학과

세계』 91(2017), 159-186.

_____.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제자(Talmidim)가

- 되고 친구(Haverim)를 찾아서." 『신학과 세계』 94(2018), 453-485.
- _____.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신앙교육을 위한 삶의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탐구." 『신학과 세계』 81(2014), 297-324.
- _____. "히브리적 사고와 기독교교육: 히브리적 사고에 기초한 성경 스토리텔링." 『신학과 세계』 96(2019), 157-182
- Kwon, Bokeum. *A Study on the Church that Attracts the Young Generation First: Focusing on the Case of Jeonju University*.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3.
- Kim, Youngwoo. *Church and Ministry in the New Normal Era with EPIC*.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3.
- Kim, Yumin. *Church Education in the Age of the New Normal: A Case Study of Saejungang Church*.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2.
- Kim, Taikjo. *Teaching the Bible and the Doctrine through Stories at Military Churches in Korea*.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0.
- Seo, Eunseong.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ll-Line Ministry in the Post-COVID Era: Focusing on the Case of Hansomang Church in Korea*.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5.
- Shin, Jaejin. *Spiritual Healing and Growth through Table Fellowship: Centered on Biblical Teachings and Storytelling*.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5.
- Lee, Kyungsook. *A Study of Family Worship through Tong Bible: Focusing on Tong Bible Family Worship*.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5.

Lee, Saya. *A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Online Church Content Development in the Post-Pandemic Era: Focusing on the Case of Yanglim Church in Gwangju.*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3.

Lee, Sehee. *Family Faith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e Untact Era: A Case Study of Hansomang Church, Paju, Korea.*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2.

Chung, Jinwook. *Biographical Storytelling of David in a View of*

Transformational Faith.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3.

Jung, Chanil. *A Ministerial Method for Ubiquitous Church: A Case Study of Hansomang Church, Paju, Korea.*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2.

Jin, Ikchang. *Intergenerational Faith Connection and Growth: EPIC Theory-Based Small Group Model Proposal.* D.Min. diss., Drew University, 2025.

국외 문헌

Brueggemann, Walter. *The Prophetic Imagin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8.

Bruner, Jerome.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Crouch, Andy. *The Tech-Wise Family.* Grand Rapids: Baker Books, 2017.

Dean, Kenda Creasy. *Almost Christi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1970.

Groome, Thomas H.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Collins, 1980.

-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Kent, Orit, and Allison Cook. *A Philosophy of Havruta*. Waltham, MA: Mandel Center for Studies in Jewish Education, 2010.
- Peterson, Eugene. *Eat This Book*. Grand Rapids: Eerdmans, 2006.
- Ricoeur, Paul. *Time and Narra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Smith, Christian. *Soul Searching: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American Teenag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Smith, James K. A. *Desiring the Kingdom*.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_____. *You Are What You Love*.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6.
- Turkle, Sherry. *Alone Together*. New York: Basic Books, 2011.
- _____. *Reclaiming Conversation*. New York: Penguin Press, 2015.
- Vanhoozer, Kevin J. *The Drama of Doctrin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Vygotsky, Lev.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Westerhoff,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Seabury Press, 1976.

인터넷 및 통계자료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통계(233호):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넘버즈,

https://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85

[2026.3.15. 최종접속].

한국갤럽. 「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5.

11. 5 최종 접속].

Pew Research Center. *Religious Landscape Study*.

Barna Group. *Faith After the Pandemic*. Ventura, CA: Barna, 2021.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Ingi Kim

Place and Date of Birth: Incheon, South Korea, December 11, 1987

Parents' Names: Hakeui Kim and Yunjoo Park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Wonjong High School 68, Sosa-ro 807beon-gil, Ojeong-gu,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2006
Collegi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14, 2012
Graduate: Drew University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M. Div	May 16, 2015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Ingi Kim

Name typed

March 15, 2026

date